

Haida®

마그네틱 필터 추가 할인!



Haida 본사 지원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마그네틱 필터 추가 할인 판매!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500



정품무한잉크

4×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Wifi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사진용지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축제·행사 장비대여 1분 출력 촬영 +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회원표창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 야

- ① 공 로 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작 품 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③ 출 판 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 (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 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④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⑤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 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⑥ 우수회원상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마 감 일

2024년 1월 17일(수) 협회 도착분에 한함

진 행 절 차

- 접수 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4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제 61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2024년 1월 17일(수) (도착분)

작품내용

8"×10"(자유작)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시 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

접수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7일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접 수 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화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

02-2655-3131~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특 전

수상자는 2024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는 다음 대회 부터 1점으로 하향)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Contents

December 2023 Vol.521

Cover Story



박옥수(중구) - 시청앞

박옥수 사진에는 우리가 애써 지우거나 잊으려 했던 전통이라는 이름의 잔재가 있고, 누군가는 희망 속에서, 또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다. 현재를 구성하는 퍼즐의 하나인 과거가 속절없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살아있다.

03	Headnote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06	특집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및 참여작가 부스전
44	전시광고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寫中有畫 畫中有寫 - 김준기(익산)
48	전시광고 '박제(剝製)된 시간' - 서우식(강동구)
52	전시광고 첫 만남의 감흥, 십년 촬영의 열매 '백두산' - 신금락(제주)
56	지상전 01 '삼한일통' 김유신 장군 신화 숨선다 팔공산 - 강위원(대구)
60	Photo Essay 01 꽃을 든 아이 무덤가 들꽃으로 웃다 제주 동자석 - 이창훈(제주)
64	지상전 02 주름진 얼굴 가득 모정의 세월 '주령주령' 우리 어머님 My mother - 박미순(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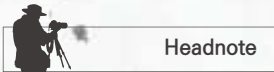
44



48



52



Headnote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 전반기에 제30대 집행부가 힘차게 출범하여 여러 기구를 새롭게 조직하고 정비하여 많은 실적을 내며 달려왔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은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활동이 재개되면서 못 열었던 각종 전시회가 각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심혈을 기울인 제41회 대한민국사진대전과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회, 지부의 회원전도 많이 열려 올해가 사진예술 활동의 재도약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여러 군데 전시회에 다녀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반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여 개최한 전시회가 개전식 이후에는 다소 한산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훌륭한 작품들이 관객, 지역민들에게 감동과 힐링의 시간이 되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동참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의욕적인 사진활동 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에 뜨거운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Contents

December 2023 Vol.521



- 68 **Review & Preview**
하늘과 땅과 바다, 두 사진인 촬영한 생명의 근원
브라이언 오스틴, 웨인 레빈 ; 무경계 No Boundaries - 김재훈

- 74 **사진강좌**
Photo Theory
장미, 3인 작가의 시각으로 재탄생하다
주제와 소재 - 조주은

- 78 **Travel destination**
"나는 고종황제의 비선실세였다"
구한말 독일여인 '손탁' - 최승언

- 82 **협회소식**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3년 제5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 95 **업계소식**
Gallery
신금락 네 번째 개인전 외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3년 12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웅, 최영대, 황길연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2023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2023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3 PASK KOREA Photo Festa



2023 서울포토펙스티벌 in aT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12.6 Wed - 12.10 Sun 2023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2023 SEOUL
Photo Festival in aT

주최 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예술문화재단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콘텐츠 5개 특별전 프리뷰 국내최대 사진전 이달 6일 '개막'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진예술 전시인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8th PASK KOREA PHOTO FESTA)'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민간 축제 육성 및 지원 행사로 선정된 2023 서울포토펬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서 국내 최대 사진 전시이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사진 장르를 통해 일상 속 가까이서 접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표방한다. 전시 기간은 2023년 12월 6일(수)부터 12월 10일(일)까지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마지막 날은 13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전시예술로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 특별전 I : 박옥수 특별전 - 시간여행 '서울1970'
- 특별전 II :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
- 특별전 III : 사진학과 교류전
- 특별전 IV : 새만금잼버리 특별전
- 특별전 V : 참여작가 부스전



©박옥수_서부역 염천교



©박옥수_국군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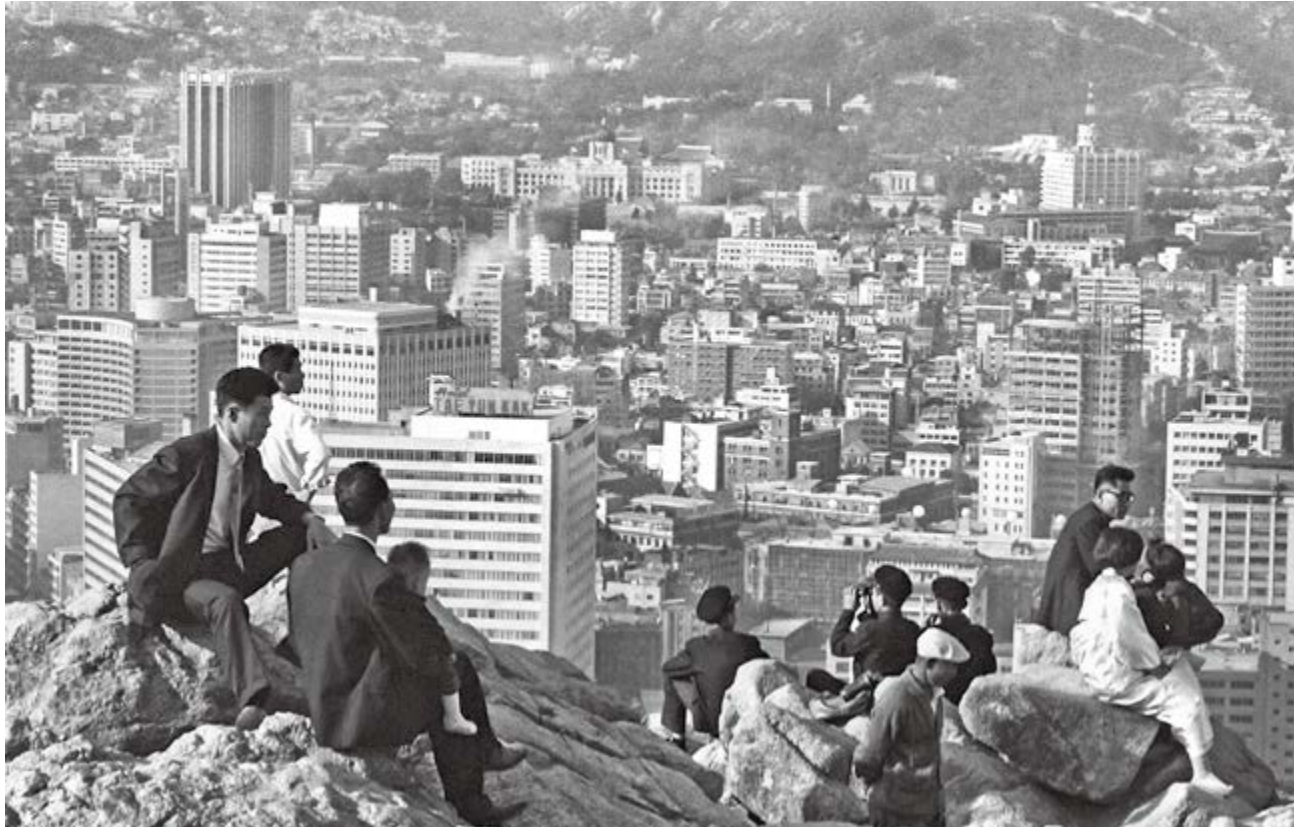


©박옥수_시정앞

특별전 I 박옥수 특별전 시간여행 '서울1970'

주머니는 비었으나 마음만은 넉넉했던 그 시절의 서울, 지나간 시간은 이제 역사가 되어 커다란 울림으로 남는다. 흑백사진에 남겨진 흔적 속에는 1970년의 서울과 그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서울과 그날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던 시민들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편린(片鱗)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로만 들어봤던 낯섦일 것이다.

사진은 기억을 기록한다.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박옥수 작가가 간직했던 오십 년 전의 역사적인 기록을 눈과 마음에 담아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옥수_남산



©박옥수_독섬



©박옥수_서울역



©박옥수_독섬



©박옥수_청계천



©박옥수_서울역 민주화 시위



©박옥수_서울전경 안국동원호처



©대상 | 박현진_반포한강공원의 노을



©우수상 | 박지연_비오는날의 풍경



©특선 | 김지수_전통놀이



©특선 | 김민경_탈춤



©특선 | 서병태_정류장 풍경



©특선 | 이채윤_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특선 | 김정하_널뛰기



©우수상 | 고진성_비누방울 놀이

특별전 II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는다.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멋진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2023년의 사진예술은 시민이 문화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포토펬스티벌 세부 프로그램인 서울시 일상 사진 공모전과 청소년 사진제는 모두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사진을 공모한 대회이다. 주변의 평범한 친구와 지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사진예술의 즐거움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대상 | 김윤서_횡단보도



©우수상 | 중고등부_김도윤_그저 지나치는 것을 다시보도록 하자



©최우수상 | 중고등부_좌민_우리 학교 이쁘지



©특선 | 초등부_윤주안_지리산천왕봉일출



©우수상 | 중고등부_이주한_현재시각22시2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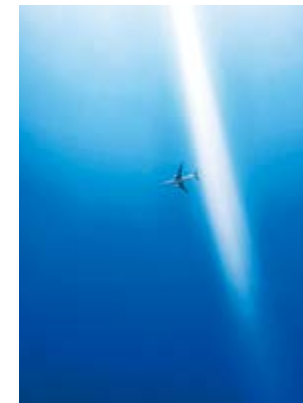
©우수상 | 초등부_한서희_가을하늘아래 개구쟁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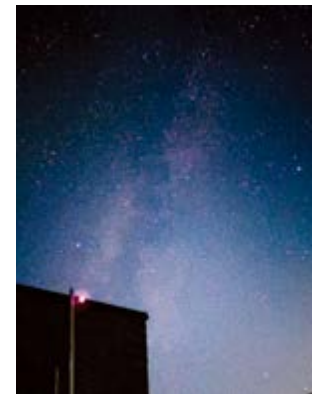
©특선 | 중고등부_박준수_나의 집



특선 | 중고등부_오무영_화흥문의 신호등



©특선 | 초등부_양해정_여름 하늘



©특선 | 초등부_김주원_무주의 밤



©특선 | 중고등부_김채원_초록빛 제주 바다



©우수상 | 초등부_신소율_발걸음



©특선 | 중고등부_고현욱_우도의 봄



©특선 | 중고등부_이상현_서울의 랜드마크가 한눈에



©특선-초등부_송혜린_영롱한 빛깔의 몽글 몽글 한 비눗방울



©특선 | 초등부_변서준_저녁 무렵의 한강

계원에대

계원예술대학교



©김동현_outskirts



©최현지_space

©정문건_gray room



©김응준_두개의 얼굴



©이혜지_wine



©이한림_아르망 드 브리낙

신구대학교

신구대학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진과 영상교육을
선도하는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입니다.

특별전 III

사진학과 교류전

사진의 시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전공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진예술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재능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에 이번 교류전을 마련하였다.

홍익대 대학원, 중부대, 신구대, 계원에대 총 4개 학교 사진학과 교류전 전시를 통해 젊은 예술인의 색다른 시각을 느끼고, 앞으로의 사진예술을 이끌어 나갈 사진예술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김소희_Fashion



©김수진_Landscape 밧줄 식물



©김태완_장항동재개발프로젝트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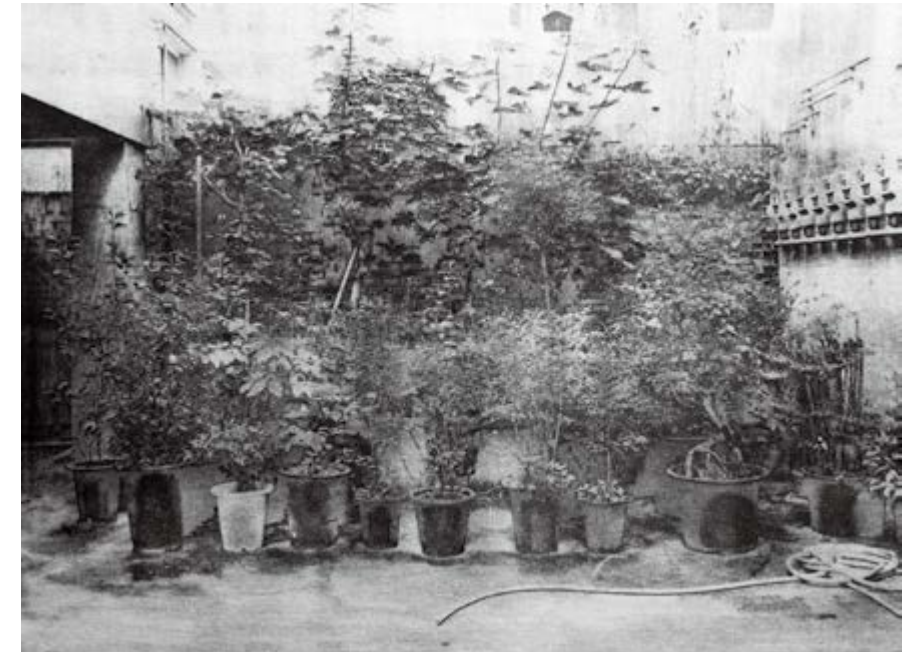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는 1997년 개설되어 27년의 전통을 쌓아온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대학이다. 예술과 첨단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형 첨단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인재 양성에 앞서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내 최고의 교육과 실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교수와 학생 간의 돈독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즐겁고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만들고 있으며, 최고의 취업률과 졸업생의 활약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서다윤_Balance

홍익대 대학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곽순양_Wandering#24



©김태환_Portal#01



특별전 IV 새만금잼버리 특별전

올여름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작 주인공인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정과 우애를 나누며 미소를 잃지 않은 대원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을 선보인다. 행사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진짜 잼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원들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가며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수찬_숲에서 길을 묻다

숲속에 길을 묻다
Yoo Soo Chan



©유수찬_숲에서 길을 묻다

특별전 V 유수찬 - 숲속에 길을 묻다

사진촬영은 단순히 그 순간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철학을 남기는 행위이다. 모두가 다르기에 같은 피사체를 촬영해도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남게 된다. 그러한 차이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이해하는 과정은 사진예술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세상에 다양성을 높이는 사진의 역할이다.

이번 축전에는 유수찬 이사장 특별전을 비롯하여 15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사진 작품이 전시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사진작가들을 비롯하여 신진 작가들도 대거 참여하는 전시로서 각 부스마다 본인만의 주제와 색채를 보여준다. 다채로운 사진작품을 통해 한국 사진예술의 현재를 확인하고 전시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수찬_숲에서 길을 묻다



©유수찬_숲에서 길을 묻다



©유수찬_숲에서 길을 묻다

ISDT

소니 카메라 배터리용 초고속 충전기



ISDT NP2

90분

QC 3.0 고속충전

※ 고속충전시, 충전시간은
충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3종류 대응

NP-FZ100, NP-FW50, NP-BX1, 3종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멀티포트



컬러 LCD 모니터

충전 상태를 상세하게 표시하는
컬러 LCD 모니터 탑재

PHOTOCLAM

PHOTOCLAM

PTC-1645M WR



초고탄성 카본 방수 삼각대

Haida

하이다 마그네틱 필터



자석으로 빠르고 쉽게 결합하는 필터

F-stop

듀라 다이아몬드 백팩



탈로파 50L 백팩 아즈나 37L 백팩
듀라 다이아몬드 듀라 다이아몬드

CAVER

BV-65



영상용 카본 삼각대
유압식 비디오 헤드

CAVIX

PH-720A



720° 파노라마 짐벌 헤드

SUNWAYFOTO

CR-3015A



360° VR 파노라마 헤드

df DIGITALFOTO

타노스 SE



원핸드 짐벌 서포트 시스템 하네스

MOZA

SLYPOD PRO



가볍고 무빙이 안정적인
전동 슬라이더 모노포드

ISDT

NP2 스마트 충전기



듀얼 스마트 고속 충전기
NP-FZ100 / NP-FW50 / NP-BX1
충전 가능

'가볍고 튼튼' 포토클램 카본 삼각대

굵기 가늘어도 더 강한 까닭은 카본 '탄성계수'

1. 카본(Carbon)이란 무엇인가?



포토클램 삼각대의 다리는 카본으로 만듭니다. 카본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카본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이며 약어로 CFRP로 표기합니다.

카본은 금속이 아닌 화학소재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금속과 같은 강도를 훨씬 가벼운 무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탄성피로에 대한 특성이 금속과 달라 지속적인 힘이 가해졌을때 변형이 매우 적습니다. 힘을 가했을 때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율도 높아서 진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하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마찰, 마모에 대한 내구성도 높고 열 팽창도 적으며 전기 전도성이 적고 부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포토클램은 삼각대에 카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카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카본은 탄성계수에 따라 일반탄성, 중탄성, 고탄성, 초고탄성으로 나뉩니다. 탄성이 높아질수록 같은 직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높아지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진동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흡수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탄성이라는 말을 보면 고무줄이 떠오르고 더 잘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것이 생각나지만 실제로 탄성율이 높을수록 반대로 더 적게 구부러지고 단단해 집니다. 실제로 포토클램 삼각대는 누르거나 비트는 움직임에 거의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금속 한 덩어리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삼각대 가격에서 카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탄성 카본은 일반탄성 카본보다 가격이 몇 배에 이릅니다. 저가형 카본 삼각대는 일반적으로 저탄성 카본을 사용하고 때문에 경량화 외에 높은 지지율, 진동흡수력, 내구도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카본의 등급은 어떻게 나뉘는가?

카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품은 소재의 질에 따라 품질이 바뀝니다. 금(Gold)을 예로 들어도 14K, 18K, 24K 서로 다른 함유량과 색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본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견고하고 진동에 강하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카본 소재는 매우 가늘고 얇은 원단 여러 겹을 겹친 다음 레진으로 이를 굳혀 사용하는데 우리 눈에는 여러 겹의 카본 중 가장 바깥 층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카본을 사용했는데도 유독 가격이 낮은 제품은 그 안에 사용한 카본 원단의 질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탄성계수가 떨어지고 수준낮은 카본을 사용하면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본의 등급은 탄성계수에 의해 나뉩니다. 카본은 옷을 만드는 천과 그 개념이 매우 비슷합니다. 탄소로 만든 매우 가느다란 실(Fibre)을 직조하듯 배치해 한 장의 원단(Fabric)을 만듭니다. 이 때 원단을 이루는 원사가 균일하고 품질이 좋아야 원단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본 원단을 만드는 레진 또한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원사를 적은 양의 레진으로 굳힌 카본이 등급이 높은 카본입니다.

카본의 성능을 좌우하는 지표는 탄성계수입니다. 이것은 tf/mm²으로 나타냅니다. 카본을 활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40tf/mm²과 같은 탄성계수를 갖춘 카본을 40 ton 원단 60tf/mm² 수치를 갖춘 카본을 60 ton 원단 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국내에서는 낚시대에서 이러한 수치를 볼 수 있고 자전거에서는 T800, T1000 등의 수치를 볼 수 있는데 40 ton 원단과 T800 원단이 같은 탄성계수 입니다.

3.그렇다면 어떠한 카본이 좋은 카본인가?



그래서 삼각대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카본을 몇 겹 사용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탄성계수가 높은 카본을 사용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탄성계수가 낮은 카본을 여러 겹 겹쳐도 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신 무게와 두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본 삼각대의 두께와 무게는 증가할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카본 원단의 질이 삼각대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포토클램 삼각대에 주로 사용하는 카본은 40 ton 원단과 60 ton 원단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고급 낚시대, 자전거 프레임, 테니스 라켓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60 ton 원단은 삼각대는 물론 여타 영역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고급 카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ton 초고탄성 카본을 사용한 마이스터 시리즈가 얇은 다리 굵기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두껍고 큰 삼각대만큼 높은 지지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삼각대 제조사 중에서도 사용하는 카본 원단의 탄성계수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포토클램이 카본 원단의 탄성계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신있는 고급 카본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포토클램은 최고의 카본 섬유 제조사인 토레이(TORAY)의 국내에서 만든 카본 섬유를 사용하며 꼼꼼한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놀타 반사렌즈 레어템을

1/4가격에!

켈다 240mm F5.0 수동 반사렌즈



공식 판매가 280,000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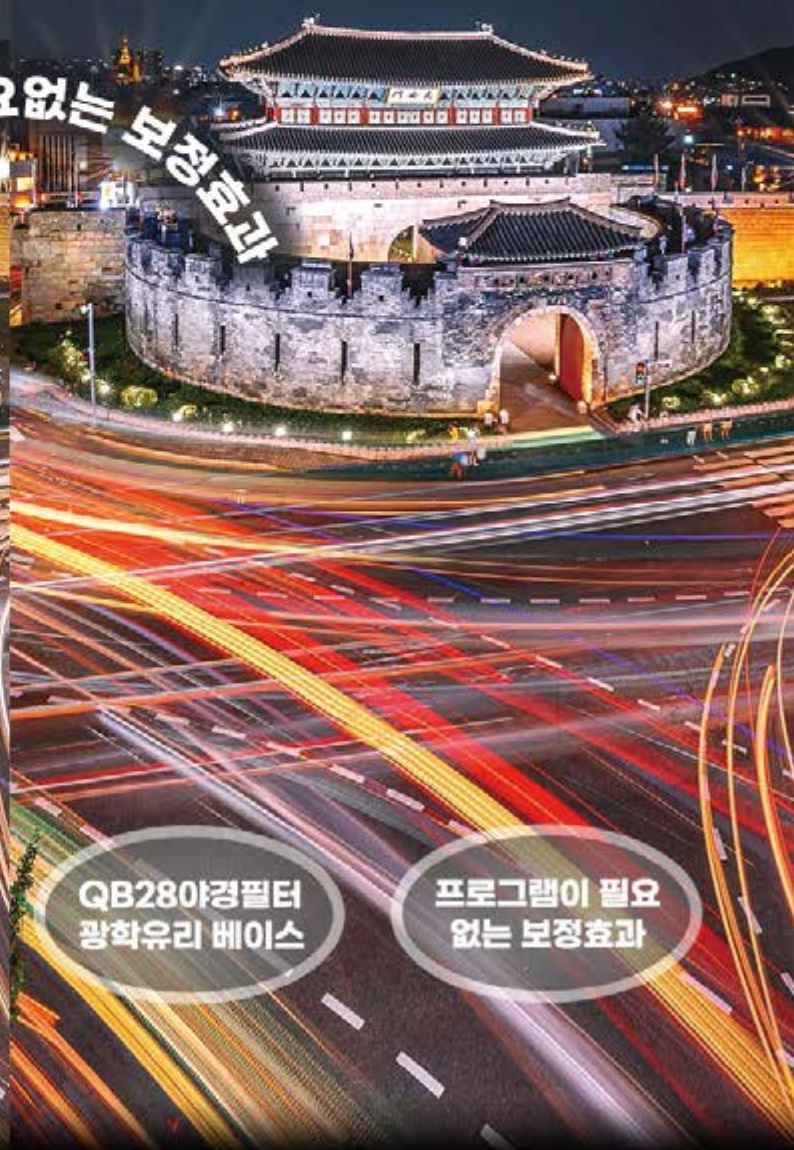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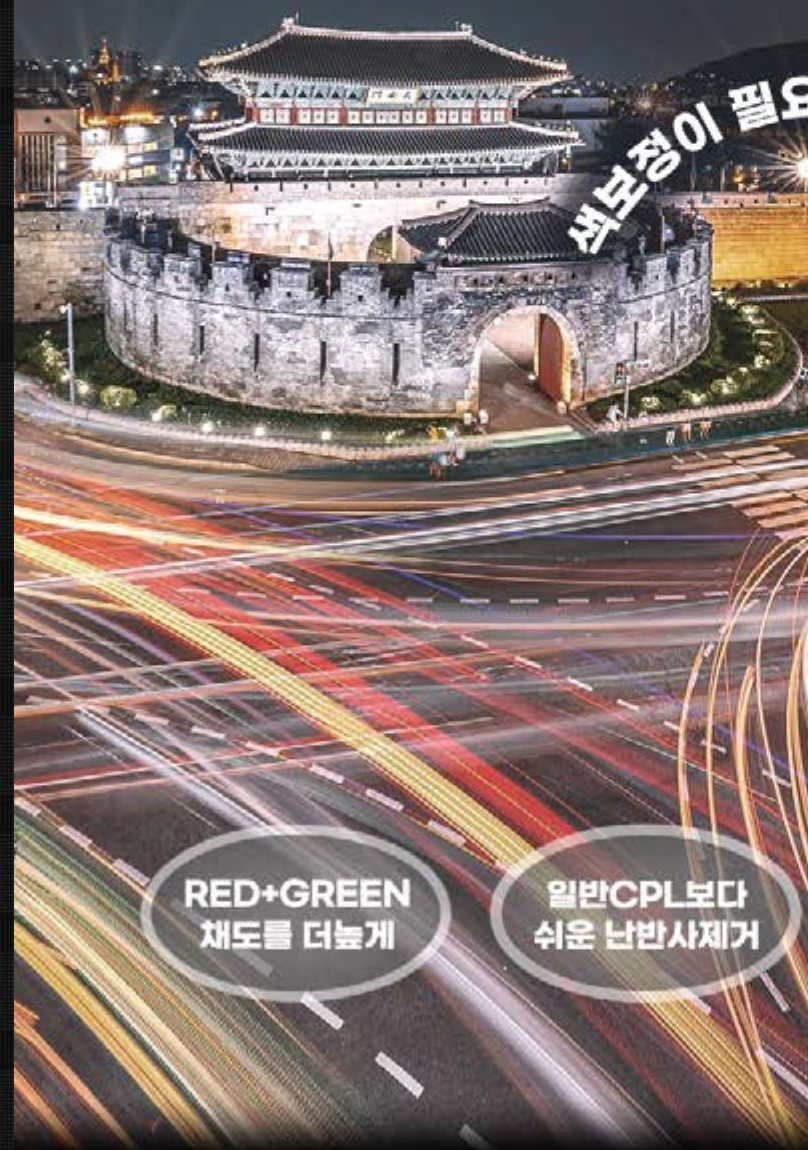


세계최초 신개념 필터 개발 **브라이트CPL**

세상에 없던 풍경사진 최적화 자석 필터

일반 CPL

브라이트 CPL



RED+GREEN
채도를 더높게

일반CPL보다
쉬운 난반사제거

QB280야경필터
광학유리 베이스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보정효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아직도 무거운 삼각대만 들고 다니시나요?

삼각대 리뷰전문작가 15명이 극찬한 제품
2023년 벤로 여행용 삼각대 **판매율 1위**

벤로 사이언버드 삼각대

깃털처럼 가볍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1.08kg
헤드포함 무게

벤로코리아만의 특별한
기술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페이로드
4.0kg

접은길이
46cm

최대높이
155cm

최소높이
17.7cm

제휴사 특가 상품 안내

MONA
YONG PYONG

유효기간 : ~2023.11.30 (객실 기준)

패키지 구성

객실	+	조식뷔페 (하반)	+	발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	워터파크 오후권 또는 애니포레
BIG 9 할인권						
케이블카 40%, 워터파크 40%, 공룡해당랜드 20%, 켈라랜드 20%, 루지1회권 20%, 마운틴코스터 20%, 팀다이브 15%, 모나베이커리 10%, 더샵 10%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정상가 508,000원	
2인 PKG	119,000원 76%
정상가 592,000원	
3인 PKG	159,000원 73%
정상가 676,000원	
4인 PKG	199,000원 70%

이용안내

1. 제휴사링크 접속 <https://weare.pscms.co.kr/staff/mona/product>
2. 제휴사 ID, 인증번호 입력 (ID : YP28 / 인증번호 : 1190519)
3. 상품 결제하기
4. 구매 후 문자(카카오톡)수령, 카카오톡 내 URL 예약 링크 접속
*2달 이내 날짜만 예약 선택 가능
5. 객실 예약하기 클릭 후 이용일 / 객실 선택
6. 예약 확정 번호 문자 수신
7. 해당일에 프런트 방문 후 이용

패키지 구매

용평리조트 제휴사

제휴사ID YP28

제휴사 인증번호 00000000

구매자 이름

구매자 전화번호

결제방식 신용카드

선택한 티켓을 구매 하시겠습니까?

결제하기 닫기

환불 및 안내사항

1. 구매 후 미사용시 유효기간 내 취소신청 시 100% 환불 가능합니다.
2. 상품 환불 및 취소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02.6925-3193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3. 해당 판매가는 호텔 디럭스, 타워콘도 18타입 기준 요금이며, 객실 증평 및 주말은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추가 요금은 체크인 시 프런트에서 결제 해주시면 됩니다.

10년
무상 보증

-40°
뛰어난 내구성

10X
카본 파이버

삼각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Mr.Q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Tokina

RF/EF/E/Z/F/X/M43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

토키나 반사 렌즈

MC
멀티코팅

풀프레임

MF
수동초점

도넛보케

매크로

배경압축

SZX 400mm F8 Reflex MF



SZ 500mm F8 Reflex MF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대한민국 사진축전

-지회·지부 회원전 및
사진작품전 대행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Artlux® 총판

아트룩스는 첨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탈 프리미엄 (실내,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출력 전시계획-

아트룩스™



Artlux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래스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강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 SUREVIEW 서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풍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 PEBBICK 펄빅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1위 두진아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사진작가 전용 전시액자 쇼핑몰 **NAVER** 두진아트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원목액자(띄움원목액자는아트랩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프리미엄 최고급 액자



캔버스랩&아트랩 원목띄움액자 / 뒷면(후면) 모습

캔버스랩&아트랩과 원목띄움 액자 교체모습

무반사 아크릴 디아섹 (독일제무반사아크릴사용)

고광택 아크릴 디아섹 (국내산 정품 아크릴사용)



보급형 중저가 (45,000원대) 아크릴디아섹(국내산 정품)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가 중국산 품질주의 경보발령*

캔버스랩/아트랩 띄움액자(띄움액자는아트랩과 분리 재사용)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작품액자



아트랩 띄움액자 컬러 (우드,진밤,흰색,검정)

아트랩과 띄움액자 교체 분리 재사용

아트랩 띄움액자 뒷면

2022 제7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업체부 스 두진아트에서 최고품질의 최신 트렌드의 작품 인화와 액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두물머리황금빛 내림
長川 김기현 작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은 입체감과 질감”
지클리 프린팅 부드러운 색상의 재현
아트페블릭 인화 지금 경험해 보세요.

캔버스랩 & 아트랩

뷰라트 아트페블릭



좌측 아트랩 뒷면 마감/우측아트랩옆면 흰색마감 이미지연장 선택

좌측 뷰라트 뒷면 마감/우측뷰라트 앞면과 옆면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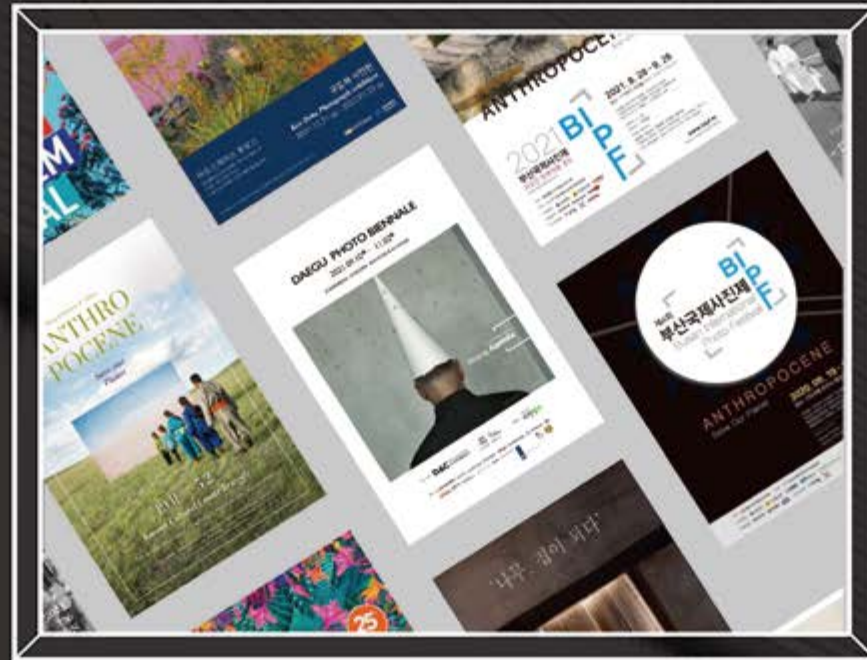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쇼핑몰 .www.dujinart.com

MO 모바일 쇼핑몰 .m.dujinart.com

네이버 검색창에 두진아트 를 검색하세요.

arttre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트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완성맞춤





정 덕 원
 대표이사
 T. 1544-2188
 M. 010-3467-3513
 Webhard_ID_arttre PW_8108
 1층: 대구시 일서구 성서로 9길 21
 2층: 강서로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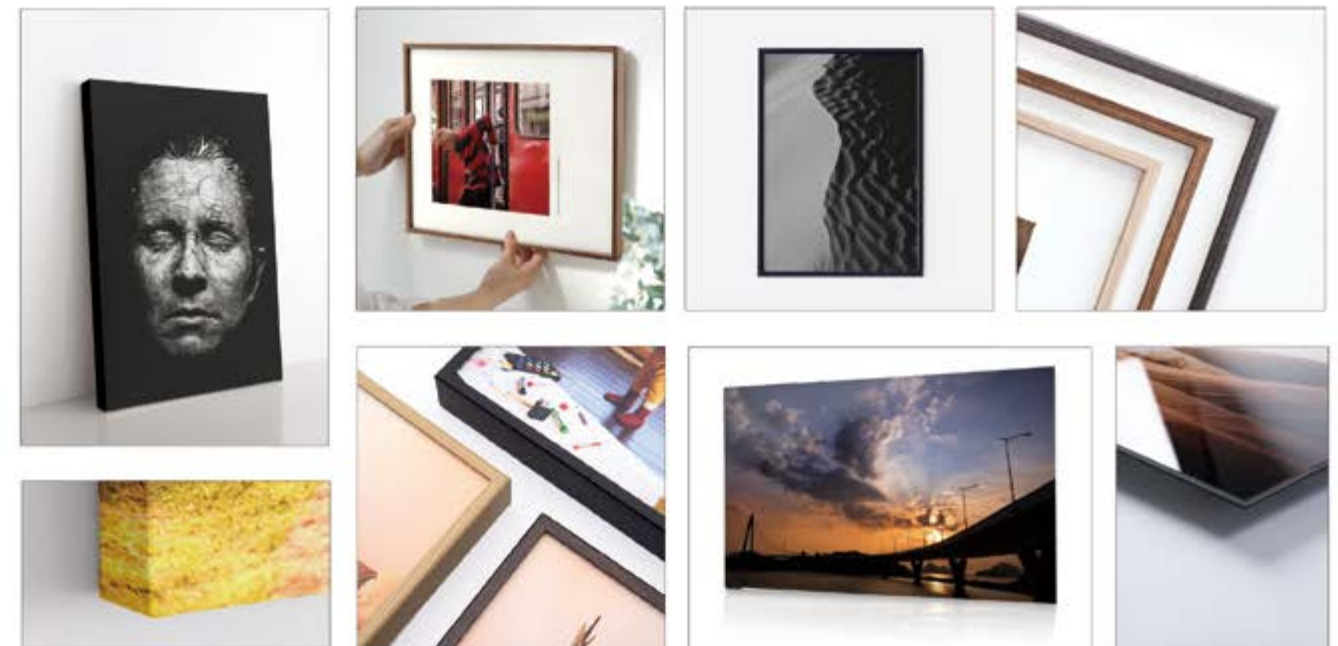
 아트레



Arttre. No.1 in the industry
We are with a photographer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시회를 준비(출력,액자)하는
작가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ww.arttre.co.kr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2022년 11월 부터 2022 미분배보상금사업 공모 수행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본 협회 회원들은 관련하여 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는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등록에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3

이메일(가)	5차 이상 2022 11월 15일 15:00까지	①
비밀번호(가)	5차 이상 2022 11월 15일 15:00까지	②
비밀번호(가) 재확인	5차 이상 2022 11월 15일 15:00까지	③
성명(가)		④
직업(가)		⑤
성별		⑥
소속단체 (신탁등재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1555	⑦
저작물(가)	✓ 저작물가 본인	⑧
이메일(가)	korraimage@naver.com	⑨
연락처(가)	02-2655-1500	⑩
휴대전화(가)	02-2655-1500	⑪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4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①
주소(가)	우편번호	주소	②
주소상세(가)	주소	상세주소	③
계좌정보	계좌은행명	계좌예금주	④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5

계좌번호	계좌번호	①
통장사본	통장사본	②
신분증사본	신분증사본	③
프로필	250자 이내	④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 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寫中有畫 畫中有寫

김준기(익산)

사진과 그림은 태생적으로 형제와도 같다. 그림이 유구한 역사를 지녔지만 사진은 그에 비하면 최근에 발명된 매체이다.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AI를 톨로 사용해 유화의 형태로 작업하면서 사진과 그림의 융합이라는 새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한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전시일시 2024년 1월 2일(화) ~ 1월 15일(월)
 전시장소 기린미술관 2관(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Tel.063-284-0888)
 전시오픈 2024년 1월 5일(금) 오후 3시
 전시작가 김준기(익산)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사진 활동을 해온 지도 어언 30여 년이 넘는다. 그간의 풍경 사진 전시 작품들, 변함없이 자연을 복제하는 수준의 작품들이라 마음의 한쪽이 허전했었다. 2001년 정든 교단을 떠나던 해 Hyperrealism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림 같은 사진(picturesque-photograph)’을 창작해 보고자 20여 년간 노력해 오다 최근에 AI 기능이 있는 Adobe Photoshop(Beta)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Photoshop(Beta) AI는 생성형 확장 AI로 사진을 회화의 영역에까지 변화의 폭을 넓혀 회화를 창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으로 촬영한 한 작품을 Photoshop(Beta) AI 기능을 활용해 회화로 얻어지는 작품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유독 유화를 선호하던 차 유

화에 대한 서적을 구매하여 유화의 작법을 탐구하고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도 섭렵하면서 유화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작업하다 보니 사진 한 장을 유화로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작품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Photoshop(Beta)을 접하면서 20여 년간의 체증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며 지금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작품들을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展’에서 선보이며 발표되는 작품들은 유화(油畵)작품 일색으로 기획되었음도 밝혀 둔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김준기_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박제(剥製)된 시간’

서우 식(강동구)



이 계절에도 옛 궁을 거닐어 본다.
오래전부터 틈이 나면 거닐던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취가 다르다.



전시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19일(월)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 (B-1층)
전시오픈 2024년 2월 14일(수) PM 4시
전시작가 서우식





©서우식_박제된 시간



©서우식_박제된 시간



©서우식_박제된 시간

'장락(長樂)'이라고 내걸린 퇴락한 현판을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 해보고 싶다.
오래 오래 즐겁고 행복했느냐고...

홍매의 화사한 아름다움, 박석과 부딪히는 요란한 빗소리, 바람에 날리는 화려한 가을과 하얗게 덮여버린 정원이나 권력의 뒤뜰에서 느껴보는 고요와 쓸쓸함이 배어나온다.
지난여름 낙선재 마루에 앉아서 처마에 떨어지는 장마 빗방울이 아름답게 느껴지던 기억을 회상케 한다.
평범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

©서우식_박제된 시간



©서우식_박제된 시간

저 안에서 살았던 인간의 군상들은 지금은 없다
텅 비어버린 가운데 화려하고 추악한 선악의 구별은 없고, 정반함의 고요함과 적막함 뿐이다

이제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느껴보고 싶다.
화려했던 영화보다는 그저 소박함이 느껴진다
멈춰진 시간과 쉽 없이 흐르는 시간의 괴리는 역사와 문명이라는 산물로 표현될 뿐이다

오늘의 영화와 고난의 순간도 먼 훗날 퇴색해 버린 빈껍데기만 남은
박제된 시간 속에 남게 되겠구나.

©서우식_박제된 시간





©신공락_백두산

첫 만남의 감흥, 십년 촬영의 열매
‘백두산’
신 공 락(제주)

앞만 보고 달려온 50해에 위암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히고 보니 새삼스럽게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고 내일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는 일상에서 그 흔한 취미 생활이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지 못했음이 후회가 되어 손에 들게 된 카메라가 제2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시일자 2024년 1월 6일(토) ~ 1월 11일(목)
전시장소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전시오픈 2024년 1월 6일(토) 오후 3시
전시작가 신공락(010-3599-3678, E-mail sgk3678@hanmail.net)



©신금락_백두산

업무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 사진을 찍기 위한 발품으로 이름이 알려진 명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진 촬영의 기회가 닿아 처음 마주한 백두산에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수 있으나 첫 만남에서의 감동은 제가 사진 작품으로 백두산을 담아야 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계획된 촬영이 중단되긴 했으나 10여 년의 촬영 기간 동안 담아낸 작품을 네 번째 개인전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의 품어낸 다양한 야생화와 함께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34점의 작품으로 담아냅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 아쉬움을 조금 보태어 백두산의 모습으로 전시장을 채워봅니다.

작품 활동과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못다 한 이야기와 작품과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시장에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신금락_백두산





'삼한일통' 김유신 장군 신화 숨쉰다 팔공산

강 위 원(대구)

첩첩 산봉우리마다 구름바다 흐르는 계곡마다 바위틈에 뿌리박고 자라난 소나무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린듯하다. 팔공산은 삼한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설화에서부터
팔만대장경 제적 보존에 이르기까지 민족 역사 유적의 보고이기도하다.
볼수록 감동을 안기는 팔공산 경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팔공산은 우리민족의 성산이며 문화와 역사의 발원지이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희귀한 생태자원의 보고이며 한민족의 첫 통일국
가인 통일신라를 상징하는 산으로서 김유신장군의 삼한일통의 꿈을 받는 신화가 탄생한 곳이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국토의 영역
을 상징하는 오악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악 혹은 아버지의 산이라는 의미로 부악(父岳)으로 불리어졌다. 고려시대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 조성된 초조대장경이 팔공산 부인사에 보관되었으나 몽골군의 방화로 소실되었고 다시 조성한 팔만대장경의 낙성회
가 팔공산 은혜사에서 개최되었다. 임진왜란당시에는 사령대사가 이끄는 승병 총본부가 팔공산 동화사에 있었으며, 조선병력에
의한 국토수복전투에 첫 승리를 거둔 영천성대첩도 이 팔공산을 거점으로 한 의병활동의 성과였다.

©강위원_소년대의 신선송, 1748년의 기록에 고색창연한 오래된 소나무라고 소개되어 있다. 2017



©강위원 관봉약사여래불 좌상(보물 제431호)의 측면모습, 광배를 형성하는 병풍바위와 함께 완벽한 석불상의 미의식을 갖추고 있다. 2015



©강위원 팔공산 중주능선의 노적봉. 2015



©강위원 천왕봉 입구에서 본 오도봉(일명 청운대)의 여름풍경. 2016

©강위원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홍주암의 아침. 2016

정신사적으로는 한국불교사의 가장 큰 봉우리를 이룬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행득도를 했고, 아직도 원효의 수행길이 팔공산의 골짜들과 바위굴에 전설로 남아 있다. 삼국유사를 이곳에서 완성했던 일연스님의 그 업적은 중국에도 남아 있지 않은 왕희지 글씨의 비문으로 전하고 있다. 고려조의 지눌스님은 이곳에서 정혜결사를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시켰고 현 조계종단의 원류를 만들었다. 지금도 이 팔공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의 산에 두 개의 조계종 교구본사가 소재하고 있어 팔공산의 종교적 위상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한국 최초의 석굴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참배객이 많다는 갯바위 부처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처럼 국내의 다른 산들이 넘보지 못할 역사와 문화, 경승을 지닌 팔공산이 2023년 5월 23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국립공원승격에 맞추어 사진집『팔공산』이 세종도서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된 것은 팔공산의 참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큰 뜻으로 생각한다.

©강위원 눈 오는 날 소년대의 신선송. 2016



©강위원 은해사 일주문에서 보화루에 이르는 송림(1714년(숙종)에 조성된 금포정 숲길). 2016

꽃을 든 아이 무덤가 들꽃으로 웃다 제주 동자석

이 창 훈^(제주)



©이창훈_무덤 안 꽃밭에 서있는 동자석(조면암)

저 무덤에는 어떤사연, 어느 누가 묻혀있을까?
꽃을 들고 미소를 띤 어린아이는 무덤의 주인과 어떤 관계이길래 눈보라 견디며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여 계절마다 표정 바꾸는 동자석을 만나본다.



©이창훈_가슴에 꽃을 들고 있는 동자석(조면암)



©이창훈_협상곶게 노려보는 동자석(조면암)

©이창훈_가슴에 꽃을 들고 있는 동자석(조면암)

©이창훈_관모를 쓰고 있는 동자석(조면암,용암석)

제주는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섬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180만년에 이르는 지질 형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제주의 모습은 그러한 화산지형의 대표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그만큼 척박하며 정착하기에 어려운 토양구조를 가지다 보니, 본토의 다양한 문화들은 유입되더라도 제주라는 지역 안에서 자연적 환경에 적응하며 독창적인 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통과의례는 제주의 독창성이 훨씬 부각되는 분야로, 최근 역사학이나 민속학적 관점에서 많이 주목하는 로컬리티의 보고寶庫라 여겨지고 있다. 그중 장례문화는 다양한 분묘 석물들이 출현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분묘 형태와 같은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장례 문화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보수적인 문화이기에, 그 지역의 역사적인 변화나 사회상,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무덤은 종교적 사상에 따라 주검의 처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로서 보여 지



©이창훈_폭설로 동자석의 턱밑까지 눈이 쌓였다(현무암)



©이창훈_현무암으로 만든 비석과 상석



©이창훈_오래된 분묘의 석상들



©이창훈_가슴에 새겨 새겨진 동자석(조면암)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대별로 다양한 장례문화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제주가 본토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라 섬 특유의 문화를 생성되기도 하고 본토 문화와 다른 특성들이 오랫동안 전승된다는 전제를 되새겨 본다면, 제주에는 어떤 장례문화의 전개가 있었으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분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또한 분묘의 치장에서 나타나는 의례적 행위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을까? 연구의 시작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주지역의 분묘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산담에 의하여 경계를 구분 짓고, 그 산담 안에 망자와 후손을 위한 동자석을 배치하는 등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동자석과 문인석 같은 석상들을 포함한 의식물들의 배치는 제주 돌문화의 한 분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 이런 석상들이 제대로 조명도 되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여기 소개되는 몇 점 동자석 사진은 지난 20여 년간 제주의 산야를 돌아다니며 조사, 촬영한 것이다. 제주의 소중한 동자석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오래도록 전승되길 기대해 본다.



주름진 얼굴 가득 모정의 세월 '주렁주렁' 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 미 순(수원)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인고의 세월이 주름진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마디 마디마다 고스란히 남아있다.
자식 위해 삶을 희생한 93세 숭고한 모정을 담으며 더 챙겨드리지 못해 후회스런 마음으로 셔터를 누른다.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오늘도 어머님은 힘없이 약 봉투를 들고 물끄러미 허공을 보고 무슨 상념에 빠져 있으신지 낮이 나간 모습입니다.

주름진 늙은 얼굴, 허리는 굽고 휘어져 망가져 버린 뼈와 가죽만 남은 32Kg의 앙상한 몸. 이젠 병원에서 조차 치료를 포기해 버린 죽음마저도 덤덤하게 기다리는 어머님의 모습.

서른하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직 두 아들을 키우느라 희생하여 당신의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노인보다 훨씬 늙고 힘들어 보이는 93세를 맞으신 우리 어머님!

바쁘다는 핑계로 내 나이 이순(耳順)이 되어서야 늘 자식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머니의 고독한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다보니 어머니의 외롭고 고달팠을 고독한 삶이 슬픔으로 다가오고 나의 삶은 또한 어머니의 삶과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일찍 어머님을 챙겨 드렸으면,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해 드렸었다면,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었더라면,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묵묵한번 더 해드렸었다면……. 마음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박미순_우리 어머님 My mother

하늘과 땅과 바다, 두 사진인 촬영한 생명의 근원 브라이언 오스틴, 웨인 레빈 ; 무경계 No Boundaries

글 사진제공-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뎃미술관 전경, 뎃미술관 제공

뎃미술관에서는 7월부터 '웨인 레빈(Wayne Levin)'과 '브라이언 오스틴(Bryant Austin)'의 작품을 연계해서 경계없는 세계의 탐구를 뜻하는 <무경계 No Boundaries> 전시를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땅과 바다의 대표로 구름과 섞인 산맥과 바닷속에서 유영하는 고래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땅'과 '물'과 '하늘'이 그 경계를 허물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존재들과 순환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

는 자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경계 없이 흐른다. 만물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전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경계 속에서 전체는 파편이 된다. 지식과 정보는 분류하고 규정함으로 시간을 소비하지만, 예술과 종교는 언제나 근원의 생명과 영원성을 갈망하고 있다. 뎃미술관의 기획전 <무경계>에서, 오랜 시간 바닷속 풍경을 담아온 두 작가, 웨인 레빈과 브라이언

오스틴의 세계가 만난다. 전시장에서 우리는 해저로부터 솟아오른 산맥과 이를 감싸는 하늘의 구름, 물속을 유영하는 실물 크기의 고래 사진을 볼 수 있다. 브라이언 오스틴은 고래의 존재를 마주하는 강렬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실제 크기 사진으로 대상을 재현했다. 작가가 마주했던 거대하고 따뜻한 존재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다른 우주를 상상할 수 있다. 고요한 바닷속에서 고래를 만나며 작가는 외부 세계와

연결된 내면세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그에게 사진은 그러한 바라봄을 통해 찰나의 시간 너머 영원의 문을 여는 성찰의 도구가 되어주었다.

사진가 웨인 레빈은 지난 50여 년간 프리 다이빙으로 바닷속 풍경과 생물들을 찍어왔다. 이 전시에서 보여주는 하와이섬의 산맥과 구름을 담은 사진은, 대지 위에 물과 공기가 흐르는 또 하나의 수중 풍경이다.



전시전경, 뎃미술관 제공



©주상연_다른 방식의 존재 연습 전시전경, 뎃미술관 제공



전시전경, 뎃미술관 제공



©Bryant Austin, Minke Whale Composite One, 2009 printed 2010, archival lightjet print, 72×360in

깊은 내공으로 전체를 담아내는 노장의 흑백 사진은 마치 동양의 수묵화를 연상케 한다. 물은 동서양 문화 어디에서나 탄생의 신화를 담고 있다. 그에게 물은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모태이다.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유동하고 변화무쌍한 형질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은유한다. 물로 경계 지워지는 모든 대륙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성을 가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의 사진은 물과 공기의 경계, 땅과 하늘의 경계, 동서양 문화의 경계에서 보

이지 않는 에너지와 물질, 생명과 자연의 순환에 대해 끝없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자연계에는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수많은 경계선이 존재한다. 그 선들은 단순히 나누고 구분하는 동시에 결합하고 연결한다. 예술은 항상 보이지 않는 모든 경계로부터 자유로움을 꿈꾼다. 경계를 지워내고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현존의 경험이며 시각예술이 가진 힘이다. 현실을 비우고 머물러 바라보자.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 서로 다른 두 가



©Bryant Austin, A Farewell, 2009 printed 2023, archival pigment print, 28×53in



©Bryant Austin, Self Portrait VII, 2019 printed 2021, archival pigment print, 16½×22in



©Bryant Austin, Day 93, 2006 printed 2023, archival pigment print, 12×18in



©Bryant Austin, way of being, 2006 printed 2023, archival pigment print, 12×18in

지의 균형, 음과 양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신비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전체에서 떨어져 고립된 개별 존재는 서서히 빛을 잃어간다. 모든 경계에 피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자. 그 생의 기운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사진은 우리에게 머물러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친절한 예술이다. - 디렉터 주상연

브라이언 오스틴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진가이다. 오스틴이 직접 촬영한 실물 크기의 고래 사진은 예술로서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로서도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만물과 우주의 관계를 탐구하며 태양, 나무, 식물 등까지 영역을 넓혀



©Wayne Levin, Ko'olau Series #184, 2015, archival pigment print, 20×30in



©Wayne Levin, Ko'olau Series #204, 2018, archival pigment print, 30×20in



©Wayne Levin, Ko'olau Series #292, 2016, archival pigment print, 20×30in



©Wayne Levin, Ko'olau Series #319, 2021, archival pigment print, 20×30in

모든 미시적인 세계와 거시적인 세계가 하나로 이어짐을 카메라를 통해 발견해 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발로 포인트를 포함하여 닷미술관, 매사추세츠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호주 국립 해양 박물관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초대받았다. 작품집으로는 『태양, 물, 존재』(닷프레스, 2020), 『Beautiful Whale』(Abrams, 2013)이 있다.

웨이인 레빈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학사를,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하와이로 이주하여 사진을 가르치며 본격적으로 수중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진기를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만의 시각으로 공간과 하나 된 유기적인 풍경의 수중사진을 만들어 낸다. 애퍼처 및 렌즈웍스 등의 출판사를 통해 그의 작업이 소개되었고, 1984년 국립예술기금과 1989년 오하이오 예술 자문위원회, 2006년 하와이 주립 문화예술기관 등을 통해 연구 지원을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작품집 『Through a Liquid Mirror』(1997)은 하와이 출판 협회에서 그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다수의 개인전

과 단체전을 치렀으며 현재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샌디에고 사진 미술관, 호놀룰루 현대미술관, 하와이 주립 문화예술기관과 영국 덤볼라 미술관, 한국 닷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닷미술관은 사실 전시가 없어도 건물과 주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묘한 기운(?)만으로도 가 보고 싶은 곳이다. 교통이 조금만 편한 곳이었어도 핫한 곳으로 유명해졌을 만한 곳인데 대중교통으로 가기 쉽지 않은 덕분에 가능한 고즈넉함이 좋다. 전시내용이나 작품들의 느낌도 좋아서 항상 추천하는 곳 중 하나다. 차를 가지고 출사를 나간다면 쉬는 시간 코스로 잡아 꼭 들려보는 것을 추천하며 일반적인 갤러리와 다르게 월,화요일 모두 휴관이니 기억해 두자. 닷 미술관의 옆 야생정원이자 갤러리인 프레임(FRAME)에서도 디렉터인 주상연 작가의 10년 만의 개인전인 <다른 방식의 존재 연습>도 12월 말까지 전시중이니 겸해서 같이 관람하고 그 시선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년부터 해 온 전시특집이 어느새 9년째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그간 어떻게 해 왔다고 평가받는지 모르겠지만 10년째인 내년에는 올 해보다 더 좋은 전시소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다짐하면서, 관계자 및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벅빔빔한 사진이
진짜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개점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남품

장미, 3인 작가의 시각으로 재탄생하다

주제와 소재

글, 사진제공_조주은(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ocp 교수)

일상에서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축하의 꽃다발을, 슬픈 일에는 공감과 애도의 의미를 담은 꽃을 주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기쁜 일, 슬픈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꽃은 그 쓰임새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인지 가장 많은 사진작가들이 탐닉한 소재이기도 한 꽃은 사진작가들만큼이나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주제로 표현되었다.

매체 지향적인 사진작품은 사실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보다는 무엇을 찍었는가가 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 작품들을 보면 어떤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장소에서 촬영하였는지, 어떤 시간과 계절에 촬영되었는지가 먼저 궁금해지곤 한다. 그러나 소재는 무엇을 찍을 것인가와 관련된 대상의 문제라면 주제는 그 소재들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촬영자의 의식, 의도의 표현으로 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이다.

물론 “꽃”이라는 소재는 <아름답다>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외의 surprise 서프라이즈에서 새로움을 느끼듯 너무 뻔하게 느끼던 감정이 아닌 다른 의미도 있다면 훨씬 주목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아카데미 작가들의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작가들의 내면의 이야기인 주제를 읽어보고자 한다.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 장미는 색깔에 따라서도 꽃말이 달라진다. 붉은 장미는 ‘정열적인 사랑’과 ‘아름다움’과 함께 ‘기쁨’이라는 의미를 함의하며, 흰 장미는 순수, 아이보리 장미는 매력, 산호색 장미는 감사의 꽃말이 있다. 핑크장미, 분홍장미 꽃말은 바로 맹세, 단순, 행복한 사

랑이다.

노랑장미의 꽃말은 우정, 이별, 질투, 사랑의 감소, 상대방과의 사랑이 식어감에 상대방에 대한 질투, 배신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지만 반어적으로 완벽한 성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빨간 장미꽃의 꽃말은 개수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하다.

빨간 장미 한 송이 -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첫눈에 반해 버렸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빨간 장미 3 송이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빨간 장미 22 송이 - 둘만의 사랑

빨간 장미 30 송이 - 성숙한 사랑, 짝찬 사랑

빨간 장미 33 송이 -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빨간 장미 35 송이 -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사랑

빨간 장미 44 송이 -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빨간 장미 54 송이 - 오빠 사랑해

빨간 장미 99 송이 - 구구절절한 사랑

빨간 장미 100 송이 - 100% 완전한 사랑

빨간 장미 119 송이 - 나의 불타는 가슴에 물을 부려주세요.

빨간 장미 365 송이 -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빨간 장미 999 송이 - 다음 생에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장미꽃의 색깔이나 장미꽃 개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미꽃은 의미의 확장만큼 어떻게 표현했는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장미를 소재로 한 작품의 주제도 달라진다.



©유정선

*‘사랑해’라는 말 대신 빨간 장미꽃을,
‘너를 잊지 않을게’라는 말 대신 물망초 꽃을,
‘네게 행운을 드릴게요’라고 하는 대신 네잎 클로버를 선물한다면 꽃들은 그저 꽃일까?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 주는 꽃은 꽃이라는 식물이라기 보다는 “마음”일 것이다.*

유정선 작가 _ 꽃에서 배우고 만나다.

유정선 작가는 꽃에서 배우고 만난다고 했다.

자기만의 색깔과 모양으로 무언으로 말하며, 가냘픈 몸으로 모두 품어 생명을 지으며, 화려한 꽃이라 뽐내지 않고 한결같이 제 길을 가며 의젓하고 고운 빛을 낸다 하였다.

이러한 장미의 자태를 표현하기 위해 일상적이지 않은 상향의 빛을 이용하여 위에서 촬영된 유정선 작가의 장미꽃의 표정은 반복되는 윤곽의 화용돌이 마냥 돌고 도는 만남과 헤어짐, 생과 사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장미꽃의 속살 같이 투영된 질감은 인간의 모세혈관이 지나는 듯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증식되는 세포막들이 보이는 피부결 같이 느껴져 마치 내가 투영된 느낌에 들어 장미가 “나”인가 싶기까지 하다.



©유정선



©권경애_연핑

권경애 작가_꽃 중의 꽃

권경애 작가의 장미꽃은 개성이 다른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했음을 느끼며 꽃송이를 보며 겸손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권경애 작가의 장미꽃은 겨울을 인내하는 듯 눈송이가 맺힌 느낌이 나는 듯도 하고, 땀을 흘리는 듯하기도 하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우측 상단 측면광을 이용한 촬영방법으로 색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밝음과 어두움이 한 송이 안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빛과 어둠을 한 송이 안에 가두어 물방울의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빛이 부드럽게 퍼지도록 한 표현법은 역설적이게도 고통과 인내와 비교되는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권경애 작가의 작품은 장미꽃 주변에 핑크색과 노란색의 테두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변의 테두리 색은 색이 지니는 의미까지 연결해 주어 흰색 꽃이었지만 “완벽한 성취”라는 꽃말의 노랑 장미를 연상하게 하였으며, 핑크와 진한 핑크의 장미꽃말이 의미하는 행복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느끼게 한다. 프레임의 선택도 일상적인 2X3, 4x3의 직사각형 프레임이 아닌 정사각형의 프레임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어느 방향에서도 완벽하게 보이는 확고한 짜임새의 계획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세련된 도시적 감성을 자아내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권경애_진노

김윤신 작가

김윤신 작가의 장미는 어머니와의 아침밥을 의미하는 사랑의 장미이다. 그러나 진짜 장미꽃이 아니라 거품으로 이루어진 장미이다. 매일 어머니와 아침식사를 같이하는 김윤신 작가는 아침상은 어머니가 차리시고 작가는 설거지를 한다고 한다. 설거지를 하면서 만들어진 주방세제의 거품을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노후가 필요했고, 덤으로 주부습진까지 얻게 되기도 하였지만, 변화무쌍한 거품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 거품 안에 화남과 즐거움, 외로움이 다양하게 다가왔다가 사라졌고, “사라지는 것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설거지라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어머니와의 식사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보물과 같은 존재로 피어나 후라이팬 위의 장미꽃이 된 것이다. 사실 후라이팬 위에서 장미꽃을 발견한 작가의 안목이 참 놀랍다. 작가의 가슴속에 피어있던 장미가 환혼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다. 게다가 이 거품 장미는 하나가 아니라 증식을 하기도 했는데 점점 시선을 모으듯 한송이, 두송이가..가 모여 거대한 꽃송이가 되어 점점 세상을 향해 확산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모으는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장미꽃이 한 송이인지 백송이인지 장미꽃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꽃말처럼 모여진 거품 장미꽃은 또다른 의미가 되었다.

무료한 일상에 보석처럼 함께 하게 된 장미꽃 한송이, 평범한 나날 속 풋풋한 내음의 들꽃 한다발은 흔하디 흔하게 보던 식물로서의 “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귀절 같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의 의미일 것이다. 꽃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된다고 한다. 꽃은 이



©김윤신 1



©김윤신 2

름을 부르기 이전에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부른다는 것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은 대부분 아름다다. 아름다움. 멋있다. 예쁘다라는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 때가 많다. 그리고 감상자 역시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할 때는 먼저 꽃이 주는 아름다움에 현혹되기가 쉽다. 그러나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 안에는 꽃도 아름답지만 꽃과 함께한 사랑을 느꼈던 아름다운 추억과 사연들도 한 몫 했을 것이며, 그러한 기억들이 꽃말을 만들고 송이송이마다의 의미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전 우주적이고 전인류애적이거나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적 이슈의 거창한 주제가 아닌 아름다움을 전제로 한 작업에서조차 꽃이 전하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심지어는 진짜 꽃이 아닌 꽃조차도 아름답기까지 하며 사유하는 더 많은 메시지를 느끼게 하기도 한다.

현대의 예술 작품은 작가와 감상자가 만들어내는 교향곡이다.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영역은 우물속의 세계 속에만 있을 수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 만인만색의 의미를 지니며 해석되어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표피적인 소재 위주의 작품보다는 작가의 구체적 메시지를 담은 주제적 작품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니며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사진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김윤신 3



©김윤신 4

“나는 고종황제의 비선실세였다” 구한말 독일여인 ‘손탁’

글 사진제공_최승언



손탁여사_오른쪽 두번째

“저기 키가 작은 동양 사람은 일본 공사 부부지요. 사귀어보면 좋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쪽 서양 사람 중에 키가 작아 보이는 이는 웨베르 부인의 남편입니다. 영어를 좀 알아듣긴 하지만 부인과 달리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웨베르씨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프랑스 부부입니다. 프랑스 공사이지요. 액센트가 강하지만 영어를 잘 합니다.” 130년 전 서울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 손탁여사가 캐나다 예비신교 의사와 나눈 얘기 중 일부를 들려다 보면 마치 유럽의 어느 사교장을 옮겨온 듯하다. 이 같은 무도회장의 모습이 구한말 서울 한복판 정동 외교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 때는 은둔의 나라 코리아가 서양의 모습을 내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에 발을 딛으면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모습을 서양에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인들 중 선교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다. 기독교 서양 문명이 은둔의 땅 코리아의 관문을 두드리면서 한반도의 삶의 양태를 바꾸어 놓은 때였다.

청나라는 원세개를 내세워 내정간섭을 심화하고 있었고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민비는 각국의 세력을 끌어들여 조선의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손탁은 궁내부와 러시아 공사관의 연결책이 되어, ‘한러밀약’을 추진하는 등 친러거청(親



아관파천의 현장 러시아 공사관



손탁호텔

露拒清)정책을 수립, 반청운동을 통해 조선독립운동도 지원했다. 손탁이 정동 29번지 소재 1,184평 대지의 한옥 한 채를 하사받은 것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882년 대한제국은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다. 어린 아들 고종을 왕위에 앉힌 후 그를 대신해 통치하던 흥선대원군이었지만 장성한 고종에서 권력을 물려준 것이 1873년이다. 이후 민비가 나라의 살림을 좌지우지하자 권좌에 복귀를 꿈꾸고 있던 대원군에게 일어난 이 군사 정변은 절호의 기회였다. 임오군란은 별기군 신식군대에 비해 처우가 안좋은 구식군대의 불만에서 나왔다. 당시 13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

던 군인들에게 쌀에 모래를 섞어 급여를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민비의 씹씹이는 해뻘었다. 왕후는 무당을 궁중에 불러 들여 금강산 12,000 봉우리마다 쌀을 헌물하여 제사를 지낸다거나 외국 선교사의 결혼식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마구 썼던 터라 국가재정이 고갈되고 있었다. 구식 군인들이 차별받던 차에 터진 임오군란은 잘못된 정치가 몰고 온 화오리였다. 위정자에 따라 쇄국정책과 개화정책이 급변하며 한반도를 격랑속으로 몰아넣고 있던 때에 대한제국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흔들렸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며 쇄국정책으로 일관해 나라의 문을 걸



대한제국군인

어 잠군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성장하면서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고종이 장성하여 친정하게 되자 민비가 실제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권력을 손에 쥔 민비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과 교류하며 친일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대원군에 의해 조선과 통상하기 어려웠던 서양세력은 민비의 통치 기간 붓물 터지듯 한반도로 밀려왔다. 원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도 이때를 즈음하여 세상의 끝 조선에 당도할 수 있었다.

대원군 통치 당시 조선은 유럽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땅끝의 나라였다. 일본과 중국이 이미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대원군 통치기에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서세동점의 도도한 흐름 앞에 조선도 결국 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은 일본과 청, 러시아 뿐 아니라 서양 열강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이때 나타나 민비와 고종을 사로잡은 비선실세가 손탁(안토니 에트 존타크)이다. 독일 여인으로 한국의 러시아 초대 공사로 부임해온 웨베르의 처형이었으며 내한 당시 32세 과부였다. 손탁은 동생 웨베르 부인과 함께 민 민비를 만났을 때 민비가 진주분

을 남용하여 피부가 상한 것을 보고 화장품을 진상했다. 민비는 이때부터 서양식 화장품을 애용했다.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할 때 식사 및 식후 커피 등 모든 수발을 손탁 여사에게 맡겼다. 민비 시해 직후라 고종은 주위 사람을 믿지 못했다. 그 와중에 황제는 손탁여사를 신뢰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국내의 외국인 소식도 손탁을 통해 들었다. 손탁은 미국 공사, 프랑스 공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미국선교사 등도 만났고 민영환, 이상재, 윤치호, 이완용 국내 정치인들과 교제하는 등 정동의 마담 노릇을 했다.

손탁의 동생이자 러시아 공사의 부인 웨베르는 1주일에 한 번씩 정동 러시아 공사관에 외국인 내외를 초대해 파티를 베풀고 무도회를 주최했다. 1902년 4월 9일 독일인 리하르트 분쉬의 편지는 손탁의 집에 자주 내왕했던 일을 적고 있다. "그 집 요리는 일품"이며, "벨기에 영사와 프랑스 공사의 비서도 거기서 식사하며 프랑스로 대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탁 호텔은 신축 당시 황실의 '프라이빗 호텔'. 즉 예약 손님만 투숙하는 호텔로 운영되었다. 건물의 위층은 귀빈실로, 아래층은 손탁의 거주 공간을 비롯해 일반 객실과 식당 등을 배치했다. 호텔의 1층에는

서울 최초의 커피숍이 있었다. 서울에 체류하던 서양인들이 자주 찾아왔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도 종군기자로 러일전쟁 취재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호텔에 묵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했던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도 이 손탁호텔에 묵은 적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반일 활동가 헐버트와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델이 이곳 손탁호텔에서 만나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했는가 하면 '말괄량이 엘리스'로 알려진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엘리스 루스벨트도 이 호텔 귀빈실에서 묵은 적이 있다. 심지어 1905년 일본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도 조약 체결을 위해 이 손탁호텔에서 머물렀다. 을사조약 후 그의 참모들과 한국 친일파가 기념 사진을 찍은 현장이 바로 이 호텔이었다.

구한말 변변한 숙박시설이 없던 때 생긴 손탁호텔은 고위관료들과 유럽외교관들이 드나드는 사교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손탁은 고종황제의 밀사의 역할을 수행했을 정도로 고종의 신임이 받으며 활약했지만 러시아가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자, 1909년 궁내부 황실전례관 직책에서 물러났고 호텔을 팰리스 호텔의 주인 보에르에게 매각하였다. 이후 손탁은 웨베르 부인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고, 1897년 8월 공사 부인이 퇴임한 이후로는 ‘공사관 맞은편 가옥’에 거주하였다. 1909년 8월 4-5일자 ‘더 서울 프레스’에서는 “손탁이 이달 중에 고향으로 떠난다”는 사실이 보도했다. 이때는 “미스 손탁의 근사한 집이 호텔로 전환될 것”이며 “보에르 씨가 단독 경영하게 될 것”임을 보도했다.

8월 27일에는 손탁의 마지막 저녁식사 파티가 진행되었고, 8월 29일에는 독일 총영사의 주최로 송별 오찬 대연회를 열었다. 이후 손타크는 프랑스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대원군 척화비

2023년 5차 이사회 결과

일 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55명, 위임 27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선종백, 백만중, 이항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권영익,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옥진, 김윤정, 김재엽, 김정금, 김철수, 김춘도, 김화연, 민웅기, 박석관, 박승호, 백승익, 서진중, 설병갑, 손석윤, 송재운, 신경애, 오만태, 오상관, 우숙자,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재수, 이종석, 이창희, 이흥기, 임만덕, 장창근, 전태만, 정재문, 최복수, 최성용,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하봉걸 이사

위 임 : 최차열 부이사장, 김동철, 김영록, 도성만, 문금영, 박건태, 박경서, 박만석, 박인호, 박해섭, 서효석, 손병호, 송인호, 오명숙, 윤보상, 이문균, 이점용, 이창훈, 임성동, 정연수,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한용상, 한재원, 황길연, 황익출 이사

참 석 : 이경래, 이덕만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6명 중 참석 55명, 위임 27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박석관, 최임순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경과보고】

2023. 10. 21. 2023 서울사진촬영대회
2023. 10. 25. 2023 대한민국예술축전
2023. 10. 26. 한국예총 대표자 회의
2023. 11. 07. ~ 12. 초대작가위원회 전시
2023. 11. 13. 청소년사진제, 서울시일상사진공모전 심사
2023. 11. 14. 촬영지도위원회 위촉장 수여

4. 안 건

1) 장기회비미납자 정권처리의 건 - 승 인

성명	소속	회원번호	미납년도
이 정 엽	중구지부	224-09085	2021년 ~ 2023년

2) 규정 개정의 건 - 승 인

- ① 회원입회규정 개정안

회원입회규정	
변경전	변경후
제5조(복권) (2013.10.16.개정)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05.22.개정) ② 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제5조(복권) (2023.11.16.개정) ① 좌 동 ② 정권 혹은 제명되었거나 자퇴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퇴 기간동안의 매년 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회원입회규정	
변경전	변경후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정가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 복권 할 수 있다.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⑥ 좌 동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⑧ 좌 동 ⑨ 좌 동
취지 및 사유 : 2항 명확한 규정의 명시 : 5항 자퇴한 자의 복권 가능 기한을 회비미납 제명자와 동일하게 수정 : 7항 사면복권 절차의 현실화	
부 칙 1. ~ 10. 기존 동일 11.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촬영지도위원회 위원장단 임명의 건 - 승 인

	구 분	권 역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위 원 장	서 울	이 성 록	광진구지부	이 사	2기
2	부위원장	경 기	김 정 혜	남양주지부	지부장	5기
3	부위원장	인 천	윤 지 한	인천지회		3기
4	부위원장	충청-강원	이 승 주	아산지부		3기
5	부위원장	경 상	황 치 길	울산지회	자문위원	4기
6	부위원장	전 라	정 지 우	전주지부	누드분과위원장	2기

4) 이사위원회 변경의 건

- 연말까지의 활동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무에 배정하기 위해 내년 초 이사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기로 함

5)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 인

〈임 원〉

부산지회 : 사업간사 - 이순옥	홍보간사 - 권태영
대전지회 : 사무국장 - 신정규	기획간사 - 임교혁
양양지부 : 지 부 장 - 오국성	사무국장 - 김영준
재무간사 - 김관호	홍보간사 - 전영권
의전간사 - 이난성	
김포지부 : 촬영간사 - 김경애	
안양지부 : 부지부장 - 박용하	
오산지부 : 부지부장 - 김효정	
의정부지부 : 부지부장 - 김영수, 서경자	사무국장 - 강양희
사업간사 - 이두희	연구간사 - 이옥순
기획간사 - 정현진	섭외간사 - 이용욱
문화간사 - 홍성연	정보간사 - 박의철
기록간사 - 김신승	홍보간사 - 이나경
지부감사 - 정순자, 양윤정	
구미지부 : 사무국장 - 이정애	기획간사 - 윤영신
교육간사 - 주봉재	진행간사 - 서정원
양산지부 : 지 부 장 - 김미성	

〈입 회〉 - 26명

송 파 구 : 유미영(준)
울 산 : 송채운(준), 신재명(준), 이영희(정), 최순금(준)
평 창 : 고성상(준), 이해영(정)
동 두 천 : 이태수(정)
안 양 : 장옥선(준)
양 주 : 김성일(정), 박화철(정), 변은숙(정)
구 미 : 박미현(준), 정성숙(준), 주경미(준), 하선옥(정)
파 주 : 오수길(정)
군 산 : 임민석(정), 황익범(정)
전 주 : 이진수(정)
신 안 : 범은혜(정)
증 평 : 장우진(정)
청 주 : 황정구(정)
공 주 : 배정만(정), 안유진(정)
서 산 : 김석두(정)

〈승 격〉 - 7명

동 작 구 : 김명후
송 파 구 : 황점숙
광 주 : 양종섭
안 동 : 권기범
제 천 : 강문구
청 주 : 박노택
공 주 : 정종진

〈복 권〉 - 15명

서 울 : 김옥춘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류주영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광 주 : 강경옥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손찬국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양동훈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양시영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이동수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부 산 : 김호숙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울 산 : 김성철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최순범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경 산 : 이태현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마 산 : 최종수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군 산 : 최용창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아 산 : 문현준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시 드 니 : 맹찬영 - 회비미납제명 / 완납복권

6)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진행 보고 건

- 고양지부와 상주지부의 지부장 포함 전 임원의 사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권역을 담당하는 부이사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정상화 진행 중임을 안내함

7) 세무회계 컨설팅 경과 보고의 건

- 개선발전위원회 요청으로 진행한 세무회계 컨설팅 경과 및 추후 일정을 보고함

8)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승 인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김민식	제2023-지도3기 13호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인천	포토샵 중급 월요반 (사진 보정)	22주/44시간
					포토샵 초급 화요반 (사진 보정)	23주/46시간
2	오만태	제2023-지도3기 28호	한국예총 시흥지회	시흥	포토샵	20주/40시간
3	이종룡	제2021-0181호	대구중앙사진학원	대구	사진이론과 실기 (초급)	15주/30시간
					사진이론과 실기 (중급)	
					사진이론과 실기 (고급)	
4	임흥식	제2023-지도3기 44호	송파문화원 송파문화학교	서울	사진교실(사진작가준비반) 1학기	24주/32시간
					사진교실(사진작가준비반) 2학기	24주/32시간
5	조성근	제2023-지도3기 48호	장안구민회관	수원	DSLR사진촬영&편집	12주/30시간

9) 기타의 건

① 협회 경조비 및 격려금 지급 범위 논의

- 총무위원회 이향룡 부이사장과 행정팀장인 오상관 이사에게 위임하여 이사장 경조비 및 격려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로 함

② 회원증 시안 결정 및 발급 일정 논의

- 보고된 시안을 확정하고 전체 공지를 통해 회원증 발급 일정을 안내하기로 함

③ 장학기금 수여식 진행

- 장학기금관리위원회와 수여식 일정을 결정하여 공지하기로 함

④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참석 및 홍보 독려 요청

2023년 제1차 서면이사회 결과

회신기한 : 2023년 11월 30일(목) 도착 분

의결대상 : 이 사 장 1명, 부이사장 5명, 상임이사 1명, 이 사 79명

회신결과 : 총원 86명 중 61명 회신

〈1호 안 건 : 제62회 한국사진문화상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심의위원 구성을 이사장단에 위임 - 승 인 (찬성 61/ 반대 0)

〈2호 안 건 : 제61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심사위원 추천의 건〉

: 심사위원 추천을 이사장단에 위임 - 승 인 (찬성 61/ 반대 0)

아오모리현 단풍 속으로 - 여행사진분과위원회 해외 출사

모든 나라, 모든 관광지에는 그 곳의 특별한 명소가 있다. 그 명소의 아름다움과 만나기 위해, 맛집을 찾아 가듯 여행사진분과위원회에서는 아오모리현의 가을을 만나기 위해 4박5일의 여행을 준비했다.

사과로 더 유명한 아오모리현의 단풍을 만나기 위해 31명의 회원이 뭉쳤다.

캐나다도 아니고 웬 아오모리로 단풍사진을 촬영하러 간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이 많은 촬영지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현지 작가의 명소 속 사진 설명과 초대작가님의 소중한 강의를 시작으로 출발된 사진여행이었다.

아오모리현은 사과로도 유명하지만 가을단풍으로도 이름이 나있다.

아오모리현에는 아오모리단풍 10경이 있다.

일정상 10경을 다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행이 주는 순간의

기쁨들은 참석 회원 모두가 느끼지 않았을까

비록 안개 속에서 조카쿠라 대교를 만나기는 했어도, 보이지 않는 추색을 찾느라 고생은 했지만 안개 속이어서 더 좋았다는 회원도 있었다.

비록 단풍이 다 빛바래고 떨어진 오이라세 계곡에서 만난 가을이지만 나름대로 멋지게 표현해 주신 작가님도 계셨다.

정말로 아쉬웠던 것은 하코다산 로프웨이를 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날씨만 좋았다면 로프웨이에서 웅단처럼 깔린 단풍을 만났을텐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다음은 기억할 수 밖에. 그래도 남아 있는 단풍들이 주위와 어울려 만들어진 풍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에 충분했었다.

“학이 춤추는 다리”라는 츠르노하야마시는 어찌 미생의 다리만 못한 것 같고.. 너무 멋진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에 비하랴!

처음 만나지는 타국의 풍광으로 가슴 설레기도하고, 예기치 못한 악천후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는 여행의 묘미는 이번 단풍출사에서 느끼고 온 것 같다.

멋진 단풍을 기대하고 갔는데 물가에서 철지난 단풍들을 만나면서 쓸쓸한 가을과 함께 저물어가는 인생의 쓸쓸함을 느낀 반면, 아직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준 멋진 가을단풍을 보며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만나며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마주보고 온것처럼 가슴 한켠이 에리기도 하였다.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린 가을을 만나고 왔다.

단풍이 붉어야만 예쁜 건 아니었다. 소임을 다하고도 남은 시간을 물속에 서라도 의미를 부여안으며 찾아주는 이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낙엽에서 인생을 배운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여행 중에도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된다.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타인을 위하여 모든 걸 양보하는 사람, 배려하면서도 자기의 계

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사람,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한 방향에서 진행하며 사는 사람 등등..

그렇다 하여도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태어난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므로 여행에서, 사진촬영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사는 것이므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인생샷 1장을 위하여 해매이며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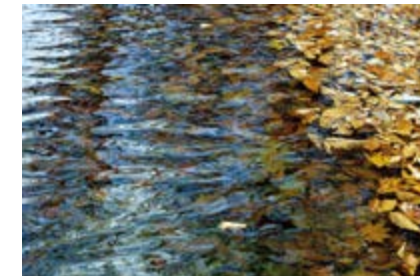
누군가는 인생 역작을 담기 위해 장타임 걸어놓고 담대 한 대 피우러 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갈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지 않았고 남은 시간에 잠시 들린 곳에서 새삼 알게되는 여행지의 새로움도 분명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다음은 어느 곳으로 가볼까? 다음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아오모리현 단풍 출사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글 : 김범순

사진 : 이운재, 김승철, 한명희, 박희연, 박우미, 김기오, 김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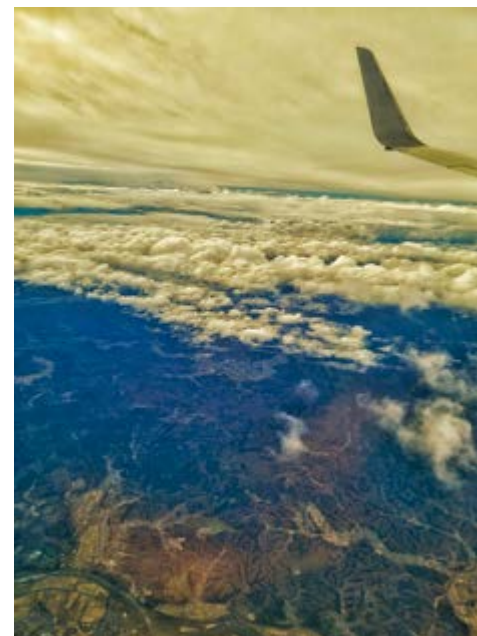
©김범순



©한명희



©이운재



©김기오



©박우미



©김승철



©박희현

아오모리단풍10경

1. 츠타누마- 호수에 떠있는 불타는 단풍
2. 오이라세 계류- 계곡을 물들이는 산책길
3. 나카모 모미지야마- 낮과 밤으로 모습이 바뀐다
4. 조카쿠라 대교-총길이 360m의 대 파노라마
5. 핫코다산- 로프웨이에서 바라다보는 붉은 웅단
6. 시라카미산자- 노란 너도밤나무숲 산책
7. 기타카네가자와의 큰 은행나무- 황금 빛으로 빛난다
8. 히로사키공원-어두운 밤에 떠다니는 환상적인 단층
9. 지옥의 늪- 김이 모락모락나는 피어오르는 늪과의 콜라보레이션
10. 난고 빠꾸기의 숲 에코랜드- 단풍의 숨은 명소



단체사진

제30대 특수사진분과 정기출사 및 교육 간담회

특수사진분과위원회(채석근 위원장)에서는 2023년 11월 11일 (토)~12일(일) 까지 1박 2일 동안 정기출사와 교육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60여명의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첫날인 11월 11일(토)은, 14시부터 참가자 접수 및 숙소 배정을 시작으로 1시간여 동안 행사 장소인 속초시립 박물관의 역사실, 상설 전시장, 민속 문화실, 문화촌 상설전시장 등을 돌아보며 속초의 역사 문화를 알고 회원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며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규 사무국장의 사회로 15시 50분부터 진행된 교육간담회는 채석근 위원장의 인사말과 일정 안내, 집행부 소개 및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사협 본부의 선종백 부이사장을 비롯한 김복순 이사, 김

춘도 이사, 신경애 이사, 이재수 이사, 장창근 이사, 정종관 이사의 참석으로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하였다.

본격적인 2시간 동안의 교육간담회 1부에는 '은하수 촬영기법', '일출 일몰 각도 알아보기' 등의 특강과 질의 응답으로 특수사진의 촬영 지식을 더욱 심도있게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9시부터 진행된 교육간담회 2부에는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특수사진기법 연출'을 실습하며 특수촬영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장노출의 실체' 등의 특강과 질의 응답으로 역시 알찬 시간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

21시부터는 회원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상견례 시간과 여흥 및 경품 추첨의 시간으로 즐겁게 보내고, 은하수 촬영 및 자유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11월 12일(일) 05시에는 설악대교 배계적, 서낭바위, 하조대, 울산바위 등에서 2시간여의 일출 및 장노출 촬영을 한 후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교육간담회 3부로 '장타임 촬영기법'에 관한 특강 및 토의의 시간을 가진 후에 10시에 폐회를 선언하며 1박 2일의 교육 간담회 일정을 마감하였다.

이번 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특수사진분과 회원들은 무한한 특수사진의 세계를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며, 사진의 지식을 한층 깊이 있게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념촬영

회비납부 안내 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 지회 ·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담당 :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진촬영대회 시상식

2023 서울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11월 17일 영등포구민회관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남산한옥마을에서 진행되었던 대회에서 촬영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전시와 함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유수찬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성록 이사, 강돈영 이사, 정창완 창작사진분과위원장, 박국인 지부장, 김상수 지부장, 이근숙 지부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다. 대회장인 유수찬 이사장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분들께는 커다란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5월 서울신록촬영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축사를 남겼다.

이후 시상식이 이어졌고 입선대표, 가작, 장려, 동상, 은상 그리고 금상 순으로 시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촬영대회는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연출 능력을 보여준 우수 지도위원을 선정하였는데 홍순익 촬영지도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였다. 이후 모든 공식행사를 마쳤고 전시 종료와 함께 23년 서울사진촬영대회를 마치게 되었다.





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2023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전



전시를 관람하는 초대작가님들



초대작가상 수상자 기념촬영

2023년 11월 7일(화) 강동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전시가 개최되었다. 작년부터 한사전 공모 및 전시 일정과 분리하여 초대작가전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두 번째 전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수찬 이사장과 최차열·백만중 부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이하 초대작가들과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이 함께하며 성공적인 개전식이 진행되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초대작가님들의 작품을 천천히 둘러 보았습니다. 명성에 어울리는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사진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시를 주관한 김정식 위원장은 “이번 전시에 참여해주신 초대작가님들은 사진과 함께 사진을 위해 일생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끊임없이 작품활동 하는 사진작가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아울러 이날 전시 참여작가 중 선정된 초대작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초대작가상 수상자는 김석원 작가(작품명 족적), 김정금 작가(작품명 美), 임성동 작가(작품명 해녀의 섬), 박용덕 작가(작품명 완성), 최재영 작가(작품명 형상)로 총 다섯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상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끝으로 개전식이 마무리되었으며 11월 12일(일)에 전시를 마치고 다음 전시를 기약하였다.



축사하는 유수찬 이사장



초대작가 기념촬영



©박용덕_완성



©김정금_미(美)



©임성동_해녀의 섬



©김석원_족적



©최재영_형상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3년 1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20,798,128

계 : 1,130,687,814 (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281,700,000(2,817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 2021년 계 : 27,700,000

⑦ 2022년 계 : 32,200,000

⑧ 2023년 계 : 15,400,000

▷ 2023년03월(42명): 4,200,000

▷ 2023년05월(25명): 2,500,000

▷ 2023년07월(22명): 2,200,000

▷ 2023년09월(39명): 3,900,000

▷ 2023년11월(26명): 2,600,000

○기타 계 : 50,986,348

▷ 이자(보통예금) : 68,628(28대 누계)

81,623(29대 누계)

4,110(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28대 누계)

17,034,173(29대 누계)

5,394,018(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29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목동, 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30,687,814(a-b)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향룡(울산)부이사장 영식혼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2시 호텔인터볼고 파크빌리지

▪ 이기양(서울)회원 부친별세

별세 2023년 11월 23일 발인 2023년 11월 25일

신비의섬제주

사진작품 촬영

홈 : photojeju.com

제주도 촬영 안내

제주 촬영 오실 때 4명까지 삼각대 4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노출 지도 및 풍경 촬영 실시간 포인터 안내 오전과 오후

차량 : 쏘렌토 5인승 (1명~4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20만원

차량 : 9인승 승합차 (5명~7명까지 차량 포함) 하루 30만원

(개인 스토리 작업 촬영 전문 개인전시 및 작품집 별도 문의)

제주도 풍경 촬영 가이드 권 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축하합니다

(11월 입회자)



유미영(송파구,준)



송채운(울산,준)



신재명(울산,준)



이명희(울산,정)



최순금(울산,준)



고성상(평창,준)



이혜영(평창,정)



이태수(동두천,정)



장옥선(안양,준)



김성일(양주,정)



박화철(양주,정)



변은숙(양주,정)



오수길(파주,정)



박마현(구미,준)



정성숙(구미,준)



주경미(구미,준)



하선옥(구미,정)



임민석(군산,정)



황의범(군산,정)



이진수(전주,정)



범은혜(신안,정)



장우진(증평,정)



황정구(청주,정)



배정민(공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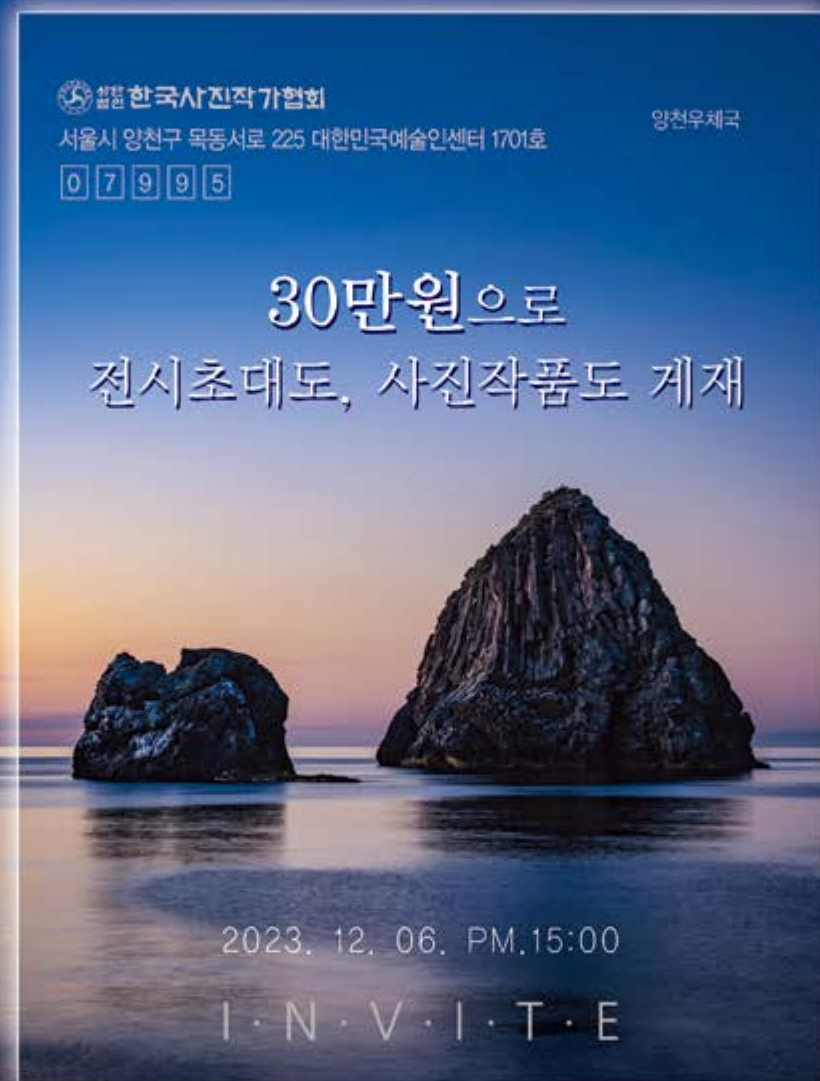
안유진(공주,정)



김석두(서산,정)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백두산 신공락 네 번째 개인전



전시일자 2024년 1월 6일(토) ~ 1월 11일(목)
전시장소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
전시오픈 2024년 1월 6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신공락(010-3599-3678, E-mail sgk3678@hanmail.net)

사진 촬영의 기회가 달아 처음 마주한 백두산에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수 있으나 첫 만남에서의 감동은 사진 작품으로 백두산을 담아야 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해 주었다. 10여 년의 촬영 기간 동안 담아낸 작품을 네 번째 개인전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백두산의 품어낸 다양한 야생화와 함께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34점의 작품으로 담아낸다. 무수히 많은 것들 가운데 아쉬움을 조금 보태어 백두산의 모습으로 전시장을 채워 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박제(剝製)된 시간 서우식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2월 14일(수) ~ 2월 19일(월)
전시장소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갤러리 (B-1층)
전시오픈 2024년 2월 14일(수) PM.4시
전시작가 서우식

이 계절에도 옛 궁을 거닐어 본다.
오래전부터 틈이 나면 거닐던 곳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취가 다르다.
“장락(長樂)”이라고 내걸린 퇴락한 현판을 보면서 그들과 이야기 해보고 싶다.
오래 오래 즐겁고 행복했느냐고... <중략>
멈춰진 시간과 쉼 없이 흐르는 시간의 괴리는 역사와 문명이라는 산물로 표현될 뿐이다
오늘의 영화와 고난의 순간도 먼 훗날 퇴색해 버린 빈껍데기만 남는 박제된 시간 속에 남게 되겠구나. <작가노트 중에서>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 寫中有畫 畫中有寫

김준기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월 2일(화) ~ 1월 15일(월)
전시장소 기린미술관 2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Tel.063-284-0888)
전시오픈 2024. 01. 05(금) 오후3시
전시작가 김준기(익산)



사진으로 촬영한 한 작품을 Photoshop(Beta) AI 기능을 활용해 회화로 얻어지는 작품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유독 유화를 선호하던 차 유화에 대한 서적을 구매하여 유화의 작법을 탐구하고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도 섭렵하면서 유화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작업하다 보니 사진 한 장을 유화로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작품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Photoshop(Beta)을 접하면서 20여 년간의 체증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며 지금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작품들을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展'에서 선보이며 발표되는 작품들은 유화(油畵)작품 일색으로 기획되었음도 밝혀 둔다. <작가노트 중에서>



빛의 그물

김호언 세 번째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17일(수)
전시장소 장생포문화창고 3층 전시장
전시작가 김호언

사진을 시작한 지 45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의 자연과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진 작업에 몰입하였습니다. 피사체를 선택할 때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작은 알갱이 속의 한 부문을 끄집어내어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여, 피사체와 교감하면서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내면적 세계를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부문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성남의 골목길

오도연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2월 9일(토) ~ 12월 29일(금)
전시장소 성남시 지구촌갤러리
전시작가 오도연

1960년대 농어촌에서 살길을 찾아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산겹질을 벗겨낸 벌건 황토 비탈에 낡은 천막과 거적대기로 시작된 도시 성남.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연탄재의 도움 없이는 오를 수 없던 가파른 골목마다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기억의 저편

김세현 개인전

전시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
(관람시간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장터길35 갤러리 노들강변
전시작가 김세현



시간은 마음 없이 흐르고 있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마음으로 담아보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무한한 정적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또다시 카메라 가방을 메고 인간의 거리로 나서본다.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속에 아직도 그리워해야 할 게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자익을 하면서.. <작가노트 중에서>



풍류

양재문 사진전

전시일시 2023년 12월 21일(목) ~ 2024년 1월 1일(월)
전시장소 갤러리인사아트
전시작가 양재문

한국적인 정체성이 담긴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춤을 신명으로 풀어내어 한지 안에 스며든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춤사위에서 만들어지는 찰나의 시퀀스적인 광적들을 추상으로 표현하는 그의 작업은, 감성을 자극하여 시상(詩想)을 떠오르게 하는 마법, 분명 사진인데 보는 이는 번짐의 시간을 묵도한다. <중략> 한국 전통춤에 대한 재해석과 일상의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관람객과 의미를 소통하려 한다. 이번 전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춤사진 인생에 대한 회고와 걸어진 길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국적인 은현의 미에 대한 풍류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2023년 1월

- 03 Headnote
새로운 시대에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양평
- 06 특집-제3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고 제6호] 제30대 정·부이사장 선거 당선자 공고
[선거공고 3호] 당선인 공고를 하며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 박옥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 제30대 정·부이사장 당선인 통
지서 교부
- 유수찬 제30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당선인
- 36 전시광고
가천대학교 사진예술 아카데미 2년 과정 - 8인의 개인전
- 42 지상전 01
고고한 기쁨 따라서, 선비의 품모 그대로
두루미의 여정 - 윤명자(양천구)
- 46 Photo Essay 01
버려진 것들을 위한 레퀴엠
Requiem for the Abandoned - 박오복(순천)
- 50 Photo Essay 02
'달은 돛 다른' 산맥남쪽 사람과 땅
코카서스 3국 - 한상훈(부산)
- 54 지상전 02
인체와 페인팅, 숨은 열망 '포착'
어울림 퍼포먼스 - 김금자(청주)
- 58 Photo Essay 03
고운 빛깔 세찬파도 가슴 뛰는 만남
내 삶의 희망, 바다 - 박성혁(대구)
회원광장
- 60 Review & Preview
마리아 스바르보바 사진전
어제의 미래 : Futuro Retro - 김재훈
사진강좌
- 66 Travel destination
암만 죽여봐라 더 많이 날아 이긴다
호주의 토끼 전쟁 - 최승언
- 70 Lightroom
책 모퉁에서 나만의 작품집 만든다-2 - 백중수
- 74 Photo Review 01
연속사진 노출변경은 '서터속도'로
HDR카메라 사용법 - 이덕만
- 78 Photo Review 02
세계에서 두번째 아시아 최초 '에듀팜'
이전 돼지박물관 - 정재문
- 82 2022년 제7차 이사회결과
- 84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 86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2 Gallery
"낭 목" - 이은숙 개인전 외



2023년 2월

- 03 Headnote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29대 이사장 김양평
- 06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협회의 미래는 교육으로 시작됩니다 - 작가과정 모집
있었던 사진작가의 꿈을 찾아 - 포토폴리오 과정 개설
- 36 전시광고
밀양 방문의 해 기획 초대전
밀양아리랑 빛으로 스며들다 - 황무 손병호(밀양) 사진전
바위산 깊은계곡 숨은 인연 찾아서
야생화 10년의 기록 - 이현우(진주) 사진전
'설레임'은 풍경이다
순천만- 황진화(순천) 사진전
- 48 Photo Travel
Photo Journey to Nha Trang, Vietnam
베트남 나트랑 사진여행기 - 전실근
- 52 Photo Essay 01
세상 모든 부처는 마을 속에 주무신다
점든 자아여 눈을 뜨라 - 유안석(강진)
- 56 Photo Essay 02
삶의 시공을 떠나 나만의 사색 속으로...
공꾸는 산책 - 이난영(파주)
- 60 지상전 02
벽(壁)
갈라짐도 사랑스럽다 바랜시간이 대견하다
- 정기엽(강동구)
회원광장
- 64 Review & Preview
알버트 왓슨 사진전
WATSON THE MAESTRO - 김재훈
사진강좌
- 70 Travel destination
'이러다 다 죽는데...' 러우 전쟁 왜 하나
잃은 것은 평화로운 일상 얻는 것은 '증오심' - 최승언
- 74 Lightroom
책 모퉁에서 나만의 작품집 만든다-3 - 백중수
- 78 2022년 제7차 이사회결과
협회소식
- 9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 본 협회 2022년 정기감사 실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3 Gallery
"야생화 사계절 감춰진 세계를 찾아서
야생화 10년의 기록을 선보이다" - 이현우 사진전 외



2023년 3월

- 03 Headnote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10 정기총회 개최 및 이사장 이·취임식
본 협회 제62차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함께 밝은 내일로' 제30대 유수찬호 출범
- 36 전시광고
내 앵글 속 狀과象, 눈감아도 울림이 되고...
나무가 품은 시간 - 박정숙 개인전
- 40 제61회 한국사진문화상 선정
제60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 작품상
- 56 Photo Essay 01
추억으로 남은 어제의 흔적과 궤적
대구를 담다 1968-2003 - 강위원
- 60 지상전 01
고통 사라지고 평화 깃드는 그 곳, 공감과 힐링의 구도
Composition of Empathy and Healing - 광보선
- 64 Photo Essay 02
물길따라 거창의 역사 피고지고...
월성계곡 수달래 - 김병호
회원광장
- 68 Photo Travel
남미 5개국 30일 간의 기록 포토트레블
지구 반대편 열정의 땅 신비 속으로<페루, 볼리비아, 칠레>
- 류중석
- 72 지상전 02
완벽한 순간 위해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千載一時 천재일시 - 이광진
- 74 Review & Preview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 - 김재훈
사진강좌
- 80 Travel destination
화려한 색깔으로 억눌린 여성 깨웠다
조선의 다큐화가 신윤복 - 최승언
- 84 Lightroom
내 사진은 내가 직접 출력한다 - 1 - 백중수
- 88 제62차 정기총회 결과
협회소식
- 89 Society News / Member Plaza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4회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3 Gallery
나무가 품은 시간
- 박정숙 개인전 외



2023년 4월

- 03 Headnote
새로운 60년 아름다운 역사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 06 제30대 집행부 이사장단 및 임원 명단
- 34 전시광고
절로 절로 저절로
감성 앵글로 포착한 말 없는 詩 - 유병용 초대 사진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뷰파인더 너머'마음이 머무는 곳
The 5th Kim Young-ae Solo Photo Exhibition - 김영애
개인전
- 42 지상전 01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의 영원한 시간-죄 - 최인옥
- 46 Photo Essay 01
늙은 어부 간데 없고 갯벌엔 빈배 홀로...
인생무상(人生無想) - 한서정
- 50 지상전 02
보이지 않는 빛 렌즈가 잡아낸 추상
My Way 제2화 - 유영의 美 - 정홍재
- 54 Photo Essay 02
소통, 공감 제시한 15인의 기획사진전
봄봄봄 - Spring, See, Watch, Look and more"
- 조주은
회원광장
- 58 Photo Travel
사계절 수려강산 '산청9경'
비경 속 터잡은 전통 문화 숨신다 - 석도상
- 62 지상전 03
긴 세월 술한 사연, 고난극복의 삶이 '오롯이'
나무가 있는 풍경 - 정일경
- 64 Review & Preview
나탈리 카르푸센코 : 모든 아름다움의 발견 - 김재훈
사진강좌
- 70 Travel destination
생명파고 멸망의 발걸음 멈추라
과학자들의 경고 "이러다 다 죽어" - 최승언
- 74 Lightroom
내 사진은 내가 직접 출력한다 - 2 - 백중수
- 78 2023 제1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 91 Society News / Member Plaza
제30대 임원 워크숍 개최... 유이사장 "토론하고 행동하자"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5 Gallery
"마음이 머무는 곳"
- 2023 제5회 김영애 개인전 외



2023년 5월

- 03 Headnote
회원님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 06 신현하 개선발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특별대담-개선발전위원회 위원장 신현하
"지난 60년 거울삼아 새시대 준비할 것"
- 34 전시광고
A life behind the lens 나의 사진 나의 리얼리즘-류후선
흑백사진전
사진과 그림의 만남-해바라기(Sunflowers)-정지우
사진과 함께하는 국토여행- 紫湖川 윤주홍 사진전-윤주홍
- 46 Photo Essay 01
미리 본 세계 스카우트잰버리 사이트
새만금 기억 그리고 공존-고기하
- 50 지상전 01
자연의 회복력에 녹스는 문명의 이기
자동차의 여정(旅情)-김민식
- 54 지상전 02
긴 기다림 끝에 만난 노랑 별빛
숲의 요정 반딧불이-유진희
- 58 Photo Essay 02
꽃으로 전하는 사랑과 감사 & 기쁨과 슬픔
화담 (花談)-신정미
회원광장
- 62 Photo Travel
남미 5개국 30일 간의 기록 포토트레블
이과수 폭포 품은 아르헨티나 & 브라질-류중석
- 66 지상전 03
외로울 땐 내 발길 닿는 그곳으로
뒤편 향한 나의 노래-홍계표
- 68 Review & Preview
프랑스어 알라르 사진전 : 비지트 프리베
Visite Privée - 김재훈
사진강좌
- 74 Travel destination
인공지능 재앙일까 축복일까
'사진도 찍어준다' 지금은 챗GPT 시대 - 최승언
- 78 Lightroom
내 사진은 내가 직접 출력한다-3-백중수
협회소식
- 82 Society News / Member Plaza
본 협회 소속 한국예총회장 명단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84 Gallery
사진과 함께하는 國土 寫眞旅行
- 紫湖川 윤주홍 사진전 외



2023년 6월

- 03 Headnote
자랑스러운 협회, 자랑스러운 회원이 됩시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 08 제41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스케치-제41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대상에 이연숙의 '복소리' 선정
운영위원장-심충적 입체적 공개심사... 참관인 제도로 공
정성 확보-김시묵
심사위원장-사진예술의 다양성 톤보여... 수상자 모두에
'축하'-박용덕
이연숙 대상 작가 인터뷰-'사진의 표현법은 한계가 없습니
다'
- 청각적 요소의 시각화를 시도했다
- 56 전시광고
'새 생명을 노래하다' - 제42회 한국영상동인회 전국회원전
'대구 어제와 오늘' - 한국영상동인회 대구지부 회원전
- 60 지상전
40년전 사라진 포항철길, 사진 기록으로 '생생'
A MOMENT OF MY WAY-김재동
- 64 Photo Essay 01
나를 찾아 나를 만나러 떠나는 여정
Rhapsody-조미정
- 68 Photo Essay 02
창문열고 두팔로 수줍은 '신록맞이'
춘몽은 신록을 부르고-이학영
- 72 Photo Travel
물길따라 약초향 따라 전통속으로...
산청 9경-석도상
- 76 Review & Preview
DEAR FOLKS - 윌리엄 클라인 사진전 - 김재훈
사진강좌
- 82 Travel destination
한반도 통일 언제쯤?... 미래학자들 '곧'
한국인 열명 중 8명 "경제가 우선"...2명은 "통일이 먼저"
- 최승언
- 86 Lightroom
인터넷에 나만의 웹 갤러리 만든다 - 1-백중수
협회소식
- 90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3 제2차 이사회 결과
본 협회 전국 지회·지부장단 워크숍 개최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106 Gallery
'새 생명을 노래하다'
- 제42회 한국영상동인회 전국회원전 외



2023년 7월

- 03 Headnote
자랑스러운 협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 06 특집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촬영단 모집의 주요 행사 프로그램 안내
- 16 특집 2023 PASK AWARDS
“수상자에게 축하를” 대한민국 최고권위 ‘사진행사’ 열려
2023 PASK AWARDS
- 42 전시광고
餘韻이 남다
Lingering still in my mind-배복형
- 46 도서광고
한국 사찰의 장례문화 ‘한견에’
月山 강 승 규 다비식 사진집
- 52 지상전 01
때론 광풍, 때론 고요... 내 마음의 메아리
솔바람 소리-이세현
- 56 Photo Essay 01
꿈꾸던 다섯가지 주제 나만의 전시회
정월에 펼쳐진 ‘예술한마당’-최차열
- 60 Photo Essay 02
시간 품은 호남명 수놓은 ‘천상의 예술’
무등의 빛 & 색-송재운
- 64 Photo Essay 03
인간의 욕망, 명품백 뒤집어 쓰다
BLUFF series 2022-여상현
- 68 지상전 02
야생화 핀 바위틈마다 인고의 세월 ‘켜켜이’
남해의 소금강 홍도-조사인
- 72 Review & Preview
롯데뮤지엄서 제이알 사진 방한전시
JR:CHRONICLES - 김재훈
사진강좌
- 78 Travel destination
권세와 이익이 아니라 지조 그랬다
시들지 않은 명작 김정희 세한도- 최승언
- 82 Lightroom
인터넷에 나만의 웹 갤러리 만든다 - 2-백중수
협회소식
- 86 제30대 본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단
-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제30대 본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홍보위원회’ 공식 출범 외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1 Gallery
‘餘韻이 남다 - Lingering still in my mind’
- 배복형 사진전 외



2023년 8월

- 03 Headnote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사무
- 08 특집 | 인터뷰
특별인터뷰 -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속적 사업 하려면 장학재단 설립해야”
- 34 전시광고
한국의 오방색-느림의 미를 담다_ 조성선(예산)
광연 - 「 넓고 깊게 보다 」 _ 윤영미(속초)
선덕여왕의 길을 걸으며 천년의 향기_ 강덕진(경주)
안산 초록 GREEN - 컨템포러리 사진전 | 임영제(안산)
안산의 봄을 중첩하다 - 컨템포러리 사진전 | 이순욱(안산)
夫餘 富南池 - 컨템포러리 사진전 | 석태남(안산)
- 54 Photo Essay 01
정전 70주년 기념 가평 다큐멘터리 사진전
가평 전투의 영웅들을 기리며_ 권순형(시드니)
- 58 지상전 01
간절한 염원에 내 발길 이끄는 그곳으로
화엄사_ 박오복(순천)
- 62 Photo Essay 02
바람이 허락해야 만날 수 있는 촬영지
추자도_ 김창환(용인)
- 66 지상전 02
이웃 간 인정 흐르던 추억의 통로
골목길 an alley_ 조영민(인천)
- 70 Review & Preview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 - 김재훈
사진강좌
- 76 Travel destination
러일전쟁 후 한국 촬영한 독일 정보원
헤르만 산더 - 최승언
협회소식
- 80 Society News
2023 제3차 이사회 결과
개선발전위원회 발대식 개최, 신현하 위원장 회의주재
제30대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1차회의 개최
분과위원회 소식
- 92 Subcommitte News / Member Plaza
꽃사진분과위원회 발대식의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7 Gallery
‘컨템포러리 4인 사진전’
- 석태남, 이순욱, 임영제, 정기준 사진전 외



2023년 9월

- 03 Headnote
위기 헤쳐나가는 지혜 모으겠습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36 전시광고
出家 - 자유와 평온의 길 - 손석윤(평창)
- 40 전시광고
“이드_id”- 이현아(대구)
- 44 전시광고
정화수 井華水, My Mother's Prayer - 양양금(경기 광주)
- 48 지상전 01
옛날엔 바다 지금은 해발 2천미터 '경이'
雲南石林 운남석림 - 정재문(이천)
- 52 Photo Essay 01
내 아버지 찾던 그곳엔 허름한 그리움이...
삼거리 이발관 - 우기곤(청주)
- 56 지상전 02
인연, 행복 그리고 그 시작점 線 面 形 - 김옥진(성남)
- 60 Photo Essay 02
Summertime in Q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대구사진비엔날레 연계)
- 64 Photo Essay 03
스위스 STARTUP GALLERY 특별 초대전
South Korea touches Switzerland
- 68 Photo Essay 04
성로병사의 마감, 그 해탈의 현장
다비식 - 강승규(서울)
- 72 Review & Preview
요시다 유니 개인전
YOSHIDA YUNI: Alchemy - 김재훈
사진강좌
- 78 사진이론
빛 그림 태어날 때 가슴이 뚫다
고전 프린트 : 사이아노 - 김정현
- 82 Travel destination
쌀 한 가마 4원, 사진 한 장 4원 50전
구한말 사진관 ‘천연당’ 이야기 - 최승언
협회소식
- 86 Society News / Membe Plaza
전국심사자적 예정자에 대한 심사교육 실시
개선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업계소식
- 95 Gallery
궁남지 - 석태남 개인전
이드_id - 이현아 개인전 외



2023년 10월

- 03 Headnote
한국사진은 협회의 기록 유산입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 36 전시광고
평창이야기_팔석정 - 손석윤(평창)
- 40 전시광고
“고독속에 열정을 담다 - 수니의 유럽, 인도여행”
사진이 음악을 만나 인생을 노래하다 - 서순희(인천)
- 44 전시광고
상상 속의 그곳 - 박영남(용인)
- 48 지상전 01
시간 멈춘 옛 필름 속엔 젊은 날의 추억이...
안산 사리포구 - 이정선(서울)
- 52 Photo Essay 01
익숙한 공간에 낯선 이질감 입하다
부역도 - 윤은숙(경기광주)
- 56 Photo Essay 02
구교윤, 구본희, 심상국, 이성우, 이종남, 임동식
2023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展 6인
- 60 지상전 02
야생화 초원 거대 암봉 사이로 걷는다
이탈리아 돌로미테 트레킹 - 김수진(성남)
- 64 Review & Preview
The Pioneers Imogen Cunningham
& Alexander Rodchenko - 김재훈
사진강좌
- 70 Photo Theory
무엇을 찍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사진의 주제와 소재 - 조주은
- 74 Travel destination
작가가 즐기면 신도 사람도 감동한다
예술의 비밀 - 최승언
협회소식
- 78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3년 제4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본 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총 24명
장학생 선발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9 Gallery
상상 속의 그곳 - 박영남 개인전 외



2023년 11월

- 03 Headnote
한국사진은 협회의 기록 유산입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 36 전시광고
평창이야기_팔석정 - 손석윤(평창)
- 40 전시광고
“고독속에 열정을 담다 - 수니의 유럽, 인도여행”
사진이 음악을 만나 인생을 노래하다 - 서순희(인천)
- 44 전시광고
상상 속의 그곳 - 박영남(용인)
- 48 지상전 01
시간 멈춘 옛 필름 속엔 젊은 날의 추억이...
안산 사리포구 - 이정선(서울)
- 52 Photo Essay 01
익숙한 공간에 낯선 이질감 입하다
부역도 - 윤은숙(경기광주)
- 56 Photo Essay 02
구교윤, 구본희, 심상국, 이성우, 이종남, 임동식
2023 경기도 향토작가 초대展 6인
- 60 지상전 02
야생화 초원 거대 암봉 사이로 걷는다
이탈리아 돌로미테 트레킹 - 김수진(성남)
- 64 Review & Preview
The Pioneers Imogen Cunningham
& Alexander Rodchenko - 김재훈
사진강좌
- 70 Photo Theory
무엇을 찍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사진의 주제와 소재 - 조주은
- 74 Travel destination
작가가 즐기면 신도 사람도 감동한다
예술의 비밀 - 최승언
협회소식
- 78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3년 제4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본 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총 24명
장학생 선발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9 Gallery
상상 속의 그곳 - 박영남 개인전 외



2023년 12월

- 03 Headnote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중
- 06 특집
제 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및 참여작가 부스전
- 44 전시광고
‘사진작가 그림을 만나다’
寫中有畫 畫中有寫 - 김준기(익산)
- 48 전시광고
‘박제(剝製)된 시간’ - 서우식(강동구)
- 52 전시광고
첫 만남의 감흥, 심년 촬영의 열매
‘백두산’ - 신궁락(제주)
- 56 지상전 01
‘삼한일통’ 김유신 장군 신화가 숨는다
팔공산 - 강위원(대구)
- 60 Photo Essay 01
꽃을 더 아이 무덤가 들꽃으로 웃다
제주 동자석 - 이창훈(제주)
- 64 지상전 02
주름진 얼굴 가득 모정의 세월 ‘주령주령’
우리 어머니 My mother - 박미순(수원)
- 68 Review & Preview
하늘과 땅과 바다, 두 사진가 촬영한 생명의 근원
브라이언 오스틴, 웨인 레빈 ; 무경계 No Boundaries
- 김재훈
사진강좌
- 74 Photo Theory
정미, 3인 작가의 시각으로 재탄생하다
주제와 소재 - 조주은
- 78 Travel destination
“나는 고종황제의 비선실세였다”
구한말 독일여인 ‘손탁’ - 최승언
협회소식
- 82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3년 제5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및 본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 95 Gallery
상 외

2023 대구 사진 페스티벌



일시: 2023.12.12~12.17(6일간)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11~13전시실
Opening: 2023.12.12^{TUE} pm3시

■ 주전시 ■ 교토사진가회 초대전 ■ 포트폴리오 특별기획전

제20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4년 3월20일(수) 당일소인유효

출품자격	제한없음
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11~14~에 한함(패널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 이내
접 수 처	(우. 31776)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72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지부장 010-5432-5656/사무국장 010-3398-4499 TEL.(041)357-4567, FAX.(041)357-4567
출품요령	작품뒷면에 작품명,성명, 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기입
접수마감	2024년 3월20일(수) 당일소인유효
심사발표	2024년 3월27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금상 1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품(해나루쌀30kg 1포) 은상 2점-당진시장·당진시의회 의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20kg 1포씩) 동상 3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10kg 1포씩) 가작 5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장려 5점-(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출품수 20% 이내,입상작 포함)
전시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전시기간	4월중 예정
작품반출	입상,입선 작품은 본 지부에 귀속되며,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
기 타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선정된 작품은 당진시와 사협 당진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기 발표된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상장을 즉시반환,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자격이 7년간 유보됨.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후원 : 당진시, 당진문화재단|당진문예의전당,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2024 당진문화진흥공모사업선정

제40회 제천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4년 2월 13일(화)소인유효

• 응모요령

- 출품자격 : 전국사진애호가
-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 11 x 14인치 컬러 및 흑백
- 출 품 료 : 1인당 20,000 원
- 출 품 수 : 1인당 4 점 이내
- 접수기간 : 2024년 2월 13일(화)소인 유효
- 접 수 처 : 우) 27164 충북 제천시 제천우체국 사서함 36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지부장 : 010-3454-0102 사무국장 : 010-2667-2107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성명.작품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입한 출품표

• 시상 및 심사.전시

- 심사일시 : 2023년 2월 17일
- 심사장소 : 추후결정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심사발표 : 2024년 2월 19일(월)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전시 및 시상 : 3월 28일 ~ 4월 1일 의림지역사박물관(예정)
- 작품반출 : 작품 반출은 하지 않습니다.

• 시상내역

- 금상 1 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 원
- 은상 2 점 :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 원
- 동상 3 점 :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 원
- 가작 5 점 : 한국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 장려 5 점 : 한국사협 제천지부장 상장
- 입선 : 한국사협 제천지부장 상장 (총 출품작 수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계좌이체 시 공제후 지급)

• 기타(유의)사항

- ①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② 동일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정계, 비회원은 7년간 입회 자격이 유보됨.
- ③ 금.은.동 수상작은 시상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④ 입상.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자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수신에 사용할 수 있음.
- ⑤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상권취소)
(이메일 : otterkang@naver.com)
- ⑥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⑦ 출품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⑧ 작품집과 상장은 시상식 후 개별발송됨.

•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 후 원 : 제천시.제천시의회.제천예총.제천문화재단.(사)한국사진작가협회